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치원교사들의 교육대학원
경험에 관한 담론분석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정 은 옥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대학원
경험에 관한 담론분석

권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정 은 옥

인 준 서

정은옥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어떤 동기로 진학하게 되었으며,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는지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즉, 유치원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는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수요자들의 생각과 경험들이 교육대학원의 교과과정 수립이나 교육수요자들의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2.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가?

본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재학 중인 S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유치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4명과 A대, B대, C대, D대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유치원 교사 4명으로 총 8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1년 4월 12일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개별 심층면담과 저널쓰기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1:1 개별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한 사람당 평균 3회, 1회 면담 시간은 40~6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녹음한 내용은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저널쓰기는 연구가 시작된 4월부터 7월말까지 저널쓰기에 동의한 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의 면담 녹음자료, 현장기록노트, 유치원 교사들의 저널쓰기 등 수집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요한 주제별로 분류하고 범주화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내부자 검증을 거쳤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고 유아교사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그러한 변화의 한 방법으로 교육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은 많은 업무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었고 반복되는 생활로 나타해진 일상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불안함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활력소를 찾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셋째,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학력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육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넷째, 유치원 교사들은 지적 욕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적 욕구를 채우고 좀 더 전문적인 교사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느끼는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을 통해 느낀 어려움으로는 일과 학업, 가사와 양육을 함께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교육대학원 수업을 위해 유치원에서 조금 이른 퇴근을 하는 것에 대한 동료교사와 원장의 눈치를 보

며 다녀야 하는 어려움, 학부 때와는 다른 과제와 논문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로는 유아교육의 이론이 더욱 탄탄해져 지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적용을 통해 기술적인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교사의 모델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으며, 점점 넓고 깊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면서 연구자적인 자세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전문가로서 성장한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신감과 또 다른 도전을 꿈꾸는 용기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유아 교사	5
1) 유아교사의 개념 및 특성	5
2) 유아교사의 역할	7
3) 유아교사의 자질	14
2. 교사의 발달단계	21
1) 교사 발달의 개념	21
2) 유아교사의 발달단계	22
4. 교육대학원의 목적과 기능	27
1) 교육대학원의 목적	27
2) 교육대학원의 기능	31
III. 연구방법	35
1. 연구 참여자	35
2. 자료 수집	41
3. 자료 분석	44
IV. 결과 및 해석	46
1.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대학원 진학 동기	46
1) 갈등과 어려움의 해결 통로 찾기	46

2) 정체된 ‘나’ 극복하기	50
3) 사회적 편견 극복하기	56
4) 전문가로 거듭나기	58
2. 교육대학원을 통해 겪는 유치원 교사들의 경험	60
1) 어려움 느끼기 : 쉽지 않은 길	61
(1) 두 마리 토끼 잡기	62
(2) 원장과 동료교사 눈치 살피기	65
(3) 과제와의 전쟁	66
2) 변화 느끼기 : 전문가로서의 ‘나’	69
(1) 탄탄해진 이론	69
(2) 현장의 적용	72
(3) 동료교사를 통해 얻는 깨달음	77
(4) 커진 생각주머니	79
(5) 나도 연구자	82
3) 보람 느끼기 : 마음에서 오는 풍요로움	84
(1) 나에게 칭찬하기	84
(2) 우물 안 개구리, 세상 밖으로!	87
V. 논의 및 결론	89
1. 요약 및 논의	89
2. 결론 및 제언	97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Katz의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단계와 필요한 훈련내용	25
<표 2> 대학원 종류 및 목적	28
<표 3>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기능	31
<표 4> 연구 참여자 배경	41
<표 5> 교육대학원 생활에 대한 개별 면담 프로토콜 및 질문 내용	4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교육은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 시기의 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의 기초가 되므로 질 높은 교육이 중요하다(조윤미, 2010). 유아기에 교육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으로는 부모와 유치원 교사를 들 수 있다. 유치원 교사란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들의 성장과 언어나 신체적, 사회적 기량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을 말한다(염지숙·이명순·조형숙·김현주, 2008). 이러한 유치원 교사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교육적인 인적 환경으로써 많은 영향을 준다.

인간의 발달은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진보해 나가는데 이런 인간의 발달은 교사에게도 나타난다. Fuller는 교사가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고, 교직생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변화해 간다고 하였다(이은영, 2001 재인용). Katz(1977)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 단계를 4단계인 생존기-강화기-갱신기-성숙기로 보고 각 발달 단계마다 적절한 과업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김유리, 2004 재인용). 교사들은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교사생활 중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욕구 등을 느끼게 되는데 수업 진행 능력의 부족, 수업 이외의 지나치게 많은 업무, 학부모와의 어렵고 불편한 관계, 낮은 급여, 동료 교사 및 원장과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선아, 2008; 김숙희, 2003; 박수미, 2001; 이영희, 2009; 이현진, 2001). 다른 연구들에서도 낮은 사회적 인식, 기혼 여교사들에게는 육아문제, 수업 자료 및 시설의 미비, 개인시간의 부족

함, 불확실한 신분보장, 새 프로그램의 적용, 육체적 과로, 과다한 업무량 등이 유치원 교사들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유치원 교사들은 교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동료·원장과의 갈등을 다른 무언가의 욕구로 표출해내려고 한다. 이 시기의 교사들은 Katz가 말한 발달단계 중 3번째 단계인 갱신기 단계에 속한다. 갱신기 단계는 3~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로 일에 대한 싫증을 느끼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항상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많은 연구들이 말한다(김화영 2009; 유순이, 2003; 이은영, 2001).

유치원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을 선택하고 대학원을 통해 갱신기 단계에서 느꼈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 교육대학원을 통해 다른 동료 교사들을 만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교사 스스로에게 재교육은 물론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되면서 지루하고 싫증을 느끼던 생활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점점 현대사회가 급변하면서 교수방법도 변화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맞춰 교사 자신의 재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되어있다.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목적은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이 차이가 있는데, 일반대학원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보다 전문적으로 학술, 기예를 연구하는 과정이다. 교육대학원의 교육목적은 현직교원과 교육전문가들의 양성 및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교육대학원에 대한 수요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달과 함께 점점 증가되어가는 추세이며, 진학

동기의 이유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교육대학원 진학 동기는 현직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다양한 수업방안 연구를 위해 진학을 하며, 학력을 위하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유 등 대부분 자아실현 의욕과 상위자격 취득 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은 교사들의 교원자질 향상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 개선에도 크게 공헌했다(김성길, 2001).

이렇게 사회가 점차 고학력화 되고 구성원간의 경쟁구도가 되어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특수대학원에 점차 교사들이 진학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주현, 2010). 이는 교사들이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곧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에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교사가 인지하고 있는 지식과 범위 내에서 학습자들에게 전달되어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대학원은 이러한 전문성 향상의 목적 이외에도 학교 운영방법에 따라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진학하는 예비교사들도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대학원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각 전공교과목에 따른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김민경, 2007; 김수진, 2004; 김주현, 2010; 김준이, 2005; 김태희, 2004; 박형주, 2007; 박희원, 2011; 백민경, 2007; 이희주, 2010; 최은성, 2003; 황운호, 2002)와 교육대학원 제도 개선방안과 전문화 방향에 대한 연구(이하나, 2008; 김성길 2001)들이 있다. 유아교육전공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에 대한 교육과정 요구 및 만족도에 대한 분석 연구가 있을 뿐이다(김향진, 2008). 이와 같이 교육대학원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교육대학원 전공과목에 따른 교과 과정 분석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을 위한 인식조사에 그치고 있을 뿐 재학 중인 교육수요자들

이 각 전공교과과정에 대해 어떻게 습득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느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 현장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이 어떤 동기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유치원 교사들은 무엇을 느끼고 배우며, 학습된 지식이 현장과는 어떻게 연계가 이루어져 학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즉,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교사로서의 역할과 태도의 변화, 교육대학원 생활을 통한 교사의 보람과 성장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치원 교사들에게 교육대학원이 가지는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현재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개발과 재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토대가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2. 유치원교사들은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교사

1) 유아교사의 개념 및 특성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과거에 스승이라는 개념에서 학교 조직체계가 형성되면서부터 교사라는 조직 구성원으로 발전되어왔다. 교사의 사전적 의미는 유치원·초등·중등학교 등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며, 교원의 의미와 연결되어 정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 교직원단체 등에 속해 있으며, 교육청 및 유아교육기관에 소속되기도 한다. 유아교육법 제 21조 제 3항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권미량 외, 2009). 이러한 의미에서 유아 교사란 일정한 양성 과정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이윤경 외, 2004).

유아 교사 또한 초·중등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직에 종사하고 있다. 교직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직은 대상이 인간으로서 교직의 활동은 인간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둘째, 교직은 인간의 어떠한 영역보다도 정신적인 영역의 측면에서의 많은 변화를 기대하며 행하는 직업이다. 셋째, 교직은 교육의 대상이 인간으로서 이해, 사랑, 헌신, 봉사 등의 사명이 투철해야 한다. 넷째, 교직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 문화 전승을 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이윤경 외, 2004). 유아교사 또한 초·중등 교사처럼 교직에 종사하기는 하지만 유아교육의 특성에 따른 유아교사

의 역할 특징이 있다.

Katz와 Goffin(1990)은 유아교사직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아교사는 유아의 다양한 측면이 고루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부합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역할은 넓고, 광범위하며, 역할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유아교육의 프로그램은 교육의 목적·목표·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교사의 임무와 교육이념이 특징 지워진다. 유아기는 어느 연령보다도 대인적 관계와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의 모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취약하며,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들이 경험하는 전인적인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유아기는 가정에서 나와 처음 집단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유아교사는 유아들이 격리불안을 극복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유아교사는 유아의 전인발달을 돕기 위해 부모와 협력하며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기는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아교사는 올바른 윤리강령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한다. 초·중등 교사와는 달리 유아교사는 교과목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교육과정을 조직하여야 한다. 즉, 유아교사는 유아의 잠재적인 흥미를 위해 가치 있는 주제들을 탐색·조사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권기욱(2005)은 유아교사직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아교직은 지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특성을 지닌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유아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인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유아교사직은 유아의 정신생활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유아의 행동 변화는 내면적 사고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학습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유아교사직은 봉사직이다.

교사는 유아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 사랑, 헌신, 봉사정신 등을 가지면서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여야 한다. 교사직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전문직과 비교할 때 교사는 봉사직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한다. 유아교사직은 미래의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직은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국가발전과 문화계승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와 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근본 동력을 가지고 있다. 유아교직은 미성숙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교사는 유아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유아교사는 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교사는 유아의 전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유아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유아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렇듯 유아교사는 유아교육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에 맞는 교사직의 특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성실한 수행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2) 유아교사의 역할

(1) 유아교사 역할의 개념

최근 우리나라는 점점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가족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자연스레 유아교육 기관의 역할과 유아 교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임아란, 2003). 역할(role)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에서 특정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유형을 말한다. 특정한 지위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에 적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지위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가짐으로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순남, 2000 재인용). 이러한 역할의 개념에는 신분적 지위, 지위와 관련된 행동체계, 지위 있는 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체계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현정, 2006). 역할의 개념에 포함되는 세 가지 요소들을 유아 교사의 역할개념에 대해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박은혜, 2003).

첫째, 역할은 특정한 사회에서 기대되는 것으로 유아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도 사회의 구성원들의 요구나 가치관·아동관·교육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둘째, 역할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으로 유아 교사는 기관 안에서의 어떤 지위를 맡는지에 따라 또는 연령에 따라서 다른 행동양식이 기대된다. 셋째, 역할은 자기 자신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 교사들의 역할들이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역할은 사회구성원들이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사에게 기대하는 행동 유형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 유아교사의 역할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유치원 교육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옮겨질 때 보다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신옥순, 1998).

이러한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점은 점차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과거에는 유아교육이 단순히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유아기에는 단순히 보호 이상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성이 강조하면서 ‘교육’과 ‘보호’를 통합된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들이다. 즉, 과거 유아교사의 역할을 보호자로서

의 역할로 보는 관점이었지만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보호 차원의 역할 수행보다 교수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보호자의 역할은 한 부분으로 이해하며 의사결정의 역할 및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이미옥, 2003). 이러한 논의로 인해 근래까지 유아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교육자로서의 역할로 혼동되어 왔다(김인자, 2002 재인용). 또한 유아교육에서의 교수적인 의미는 어머니 역할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인식되어왔다(Silin, 1985). 이것은 유아교사의 직업적인 전문성이나 역할의 차원이 다른 전문교사들보다 낮게 평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많은 연구자들(Jensen & Chevalier, 1990; Morrison, 1976; Saracho, & Davis, 1987; Spodek, Read & Patterson, 1980)은 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도 유아교사는 유치원 현장에서 계획된 것 이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유아교사의 역할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지만 대체로 보호, 양육, 상담 및 안내, 교수·교육과정의 운영, 의사결정, 중개적 역할 등이 공통된 견해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의 발달적 특징이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초·중등 교사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김숙희, 2003).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 점점 변화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할 수 있는 교사의 사고 능력에도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와 맞벌이 부부로 인한 종일반 확대에 따라 점차 유치원 교사에게 다양하고 더욱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박수진, 2009 재인용). 유아교사는 단순히 유아를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미래를 준비시킬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교수자, 상담자, 연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신덕, 2000).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아 교사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며, 전문가로서의 교사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끊임없는 자기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김유림, 2000).

(2) 유아교사의 역할 유형

교사는 교육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교육의 목적은 모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특히 유아를 가르치는 일은 매우 복잡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로서의 지식의 범주와 규정된 역할에 대한 명확한 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교육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역할이 복잡해 질 수 있다(이희경, 김성수, 2000).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많은 연구자들은 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더욱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학자들이 범주화한 역할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교수자로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김금주 외, 2009). 여러 학자들의 분류한 유아교사 역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tz(1970)는 유아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아교사의 역할을 유아들을 안전하고 편안하며, 행복하게 하는 역할의 모친모형(maternal model),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돕고, 긴장을 풀어주고, 내적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치료모형(therapeutic model),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유아들이 지식을 발달시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교수모형(instructional model)으로 구분하였다.

Spodek(1985)은 유아교사들이 양육역할, 교수역할, 관련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들 각각의 역할에는 행동요소와 의사결정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양육역할은 유아기의 특성상 유아들의 건강·보호·안전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두는 측면으로, 교사는 유아들에게 사랑과 편안함을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교수 역할은 지식전달뿐만 아니라 학습상황을 제공해주고, 교육적인 자원을 접하게 하며, 유아들로 하여금 현실세계에 대해 지각·평가하는 등 교수의 간접적인 부분까지 포함한다. 또한 교수역할에는 교육과정 설계자, 진단자, 교수조직자로서의 역할이 포함된다. 관련적 역할을 위하여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내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Schickendanz, York, Stewart 그리고 White(1990)등은 유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 계획자, 조직자, 평가자로서의 교사, 훈육자로서의 교사, 의사 결정자로서의 교사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지식 전달자로서 교사는 유아가 지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언어·비언어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계획자, 조직자, 평가자로서 교사는 교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의 계획·조직·평가를 수행한다. 가장 효과적인 계획은 이전의 계획을 토대로 나온 경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전의 경험이 다음의 교육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교수를 계획·수행하고 평가함으로써 교수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해야 한다. 훈육자로서 교사는 유아가 자아존중감을 갖고 다른 유아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활동을 잘 계획·조직하여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하며,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모델이 되고자 한다. 의사결정자로서 교사는 항상 유아들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수정 시에

반영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설정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호작용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Elis와 그의 동료들(1982)은 교사들의 역할을 유아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계획자, 학습조력자 및 감독자, 안내자 및 상담자, 문화의 해석자 및 중재자, 지역사회 연결자, 교직의 일원 및 학교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로 나누었다. 유아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폭넓게 범주화하였으며,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구체적이고 세분화시켰다.

Veale(1988)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교사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교육과정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유아교사의 권위는 교육자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있다고 보고 유아교사들은 역할을 수행할 때 관련된 성인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Smith(1991)는 유아교사들의 역할과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사들 간의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교사간의 긍정적 관계가 교직원, 유아,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질적인 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Dowling(1988)은 교사의 역할을 관찰자, 계획자, 대화자, 교수자, 모델로서의 역할을 분류하였다. 관찰로서의 교사는 오랜 시간동안 유아를 관찰하고 정보를 기록하며, 계획자로서의 교사는 유아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대화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유아에게 귀를 기울이며, 유아와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여 대화를 촉진한다. 교수자로서 역할은 유아에게 도움을 주고 지식을 전달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모델로서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며 유아의 지적 기술을 강화시킨다. 이외의 평가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허정혜, 2004 재인용).

한편 이은화(1985)는 교사 역할을 환경제공자, 관찰자, 프로그램 계획자, 연구자, 부모교육 담당자, 평가자로 분류하였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육 실천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 이론을 연구하고 현장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전문적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최근의 교사 역할에 시사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은 돕는데 있다. 유아의 발달적 특징이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역할은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유아교사의 다양한 역할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나 가치관, 아동관, 교육관 등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유아교사의 역할 유형에 의하면 유아교사들은 보호자·교수자로서의 역할을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요소로 포함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아교사의 역할에는 유아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 이외에 교수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도 그것을 전체로서 보지 않고, 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아교사에게는 의사결정자 및 연구자로서의 역할, 아동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조직 사회의 일원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아교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 자신이 교사로서의 역할 인식을 명확히 하고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 스스로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유아교사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창의성과 융통적인 사고로 질 높은 역할수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순남, 2000; 김은영, 2006; 박수진, 2009).

3) 유아교사의 자질

유아교사의 자질이란 유아교사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 특성, 교직에 대한 태도 등을 말한다. 유아교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관점도 사회·문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초기에는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와 같은 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교사의 행동과 사고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정림, 2009). 유아 교육자들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유아교사의 역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유아교사의 자질은 교육 및 교육의 대상을 보는 관점, 또는 교사의 역할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유아교사의 자질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my(1975)는 유아교사의 인성적 특징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사랑과 온정, 참을성, 활동력 외에 몇 가지를 더 포함시키고 있다. 성공적인 유아교사는 유아·성인 모두에게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일해야 하며, 새로운 의견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다차원적인 범주에서 생각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아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유아의 전인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교육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Katz와 Goffin은 유아교사의 자질로서 무엇보다도 특히 상호작용 기술을 강조하였다. 교사가 유아들의 감정·요구·상황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상호작용적 과정을 통해서라고 하였다. 유아는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의 감정, 요구, 욕구, 혼돈, 도움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행동과 태도에 기초하여 유아의 정서적, 인지적 상태를 어떠한지 체크하고, 유추하여 유아의 감정과 기분을 해석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김옥경 외, 2007 재인용).

Seefeldt(1980)는 유아교사들이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가질 때 더욱 성공적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아동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며, 아동에 대한 감정이입과 유아의 현재 수준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융통성이 있고 선입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있으며, 아동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흥미,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능력도 고루 갖추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Hess와 Croft(1981)의 교사 자질에 대한 평가는 성취, 태도, 개인적 특징의 각 영역에 4가지 기준을 포함한다. 성취 영역에는 유능함, 풍부한 상상력, 능숙한 통제 수단의 유지, 신뢰를 포함하며 태도 영역은 새로운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 행복하고 온화한 성격, 동정심 있고 민감함 태도, 아동뿐 아니라 다른 교직원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다. 개인적 특징 영역에는 유머 감각, 자신감, 알맞은 복장, 잘 조절된 음성이다.

또한 Hildebrand(1981)는 훌륭한 교사의 자질로서 아동에 대한 사랑, 자신감과 책임감, 사람에 대한 신뢰, 아동 수준에 맞는 지도, 직업의식, 아동·부모·동료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 건전한 인생관, 풍부한 유머 감각, 아동 발달 이론에 정통하며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기경화, 2008 재인용). 유해인(1990)은 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기대 정도와 평가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인성, 신체, 교육적 태도, 전문적 지식과 기능영역으로 나누어 학부모들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인성영역에는 사랑, 유머, 관용, 도덕성, 봉사성, 부모수용, 건전한 인생관, 자제력, 성실성, 공평, 개성존중, 언어, 인간관계 원만 등을 포함시켰

고, 신체 영역에는 용모, 건강, 교육적 태도영역에서는 사명감, 개인차 고려, 교육관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기능영역에서는 지적 능력, 융통성, 예능소질, 동기유발, 전문지식, 창의성, 지도기술 향상, 노력 등을 포함하였다.

김애련(1985)은 유아교사의 자질을 용모 및 몸가짐, 전문적 지식과 기능, 교직에 대한 태도영역으로 나누어 유치원 원장들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인성 요인으로는 아동에 대한 사랑, 아동과의 친밀, 성실성, 도덕성, 건전한 인생관, 봉사성, 사려성, 자제력, 유머, 정서적 안정, 자발성, 에티켓 등을 포함하였고 용모 및 몸가짐으로 요인으로는 신체적 건강, 단정한 용모, 바른 몸가짐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기능요인으로는 지적 능력, 수업준비 및 계획성, 동기유발, 융통성, 창의성, 표현력, 학습지도 기술, 교재교구의 활용능력, 응용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직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는 아동에 대한 이해, 개인차 고려, 원활한 인간관계, 직업윤리, 사명감, 전문성 함양 등을 제시하였다. 이영석 등(1993)은 유아교사의 자질은 유아 교육 및 그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아를 좋아하고 사랑하며 모성애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직 의식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 유아의 발달과 심리를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 등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은화(1985)는 유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로 소명감, 교양을 갖춘 사람, 성숙한 지적 능력과 창의력, 강한 실천력,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 지도기술에서의 다재다능한 자 등을 제시하였다(김금주 외, 2009).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기존 연구들에 기초하여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일반적인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자질

교사의 자질 중 개인적 자질은 교사가 발달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며, 특히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아교사는 다른 초·중등의 교사보다도 그 인성적 자질이 중요하다. 유아교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나 나아가 모든 생물을 사랑하며, 생명의 존엄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성실하고, 사려 깊으며, 모든 일에 적극적·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성의 소유자여야 한다. 유아교사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며, 남을 배려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개인적 자질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김성원 외, 2010; 이기숙 외, 2002).

가.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유아교사는 무엇보다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특히 유아들과의 활동량이 많은 유아교사에게는 더욱 필수적이다. 교사는 하루일과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유아들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사 자신이

먼저 사회의 규범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 온정적인 성품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성품으로는 유아에 대한 사랑과 존중심, 인내심, 따뜻하고 온정적 성품 등을 들 수 있다. 유아 교사는 유아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아에 대한 이해와 사랑, 존중심이 바탕이 된 교사는 유아를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 감정, 반응 등을 이해하고 수행해 준다. 유아들은 유치원에 오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떨어져 처음으로 집단생활을 하므로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교사의 온정적인 성품과 태도는 유아의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 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

유아교사는 모든 사물과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유아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유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갖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닌 교사는 유아의 생각이나 느낌, 반응 등을 소중히 하고 수용함으로써 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라. 열정과 성실의 태도

유아교사는 모든 일에서 성실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열정은 어떤 일에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유아교사는 자신의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갖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교사의 성실함은 유아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건강한 인간으로 자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지님으로 유아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며 끊임없이 탐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마. 풍부한 교양과 봉사적 사명의식

교사는 항상 교사로서의 품위와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다방면에 풍부한 교양을 쌓고 사회봉사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교직을 성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직은 인류와 사회에 대한 봉사이며 희생을 감수해 나가는 직업이기도 하다(김성원 외, 2010; 김옥경 외, 2007; 노명희 외, 2006; 이경희 외, 2009; 이기숙 외, 2009).

(2) 전문적 자질

전문적 자질이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유아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교사의 전문적 자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유아나 유아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실천하며 교재·교구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등의 교수 기술,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소명감이나 직업윤리 등을 포함하는 교육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전문적 지식

유아교사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성장·발달이나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유아에 대한 발달단계 및 그 밖의 지식, 교수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육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 일반적인 교양 등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들이 알아야 할 전문적 지식에는 교육철학(아동관) 및 유아의 발달심리에 관한 지식,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목표 진술 방법에 관한 지식, 평가의 목적 및 다양한 평가방법에 관한 지식, 영유아 발달 평가방법에 관한 지식-관찰법·일과 기록법, 교육활동 평가방법에 관한 지식,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지식이 있다(김옥경 외, 2007; 이경희 외, 2009).

나. 교수기술

유아교사는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수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며, 교재·교구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 및 전문가들과의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참여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김춘경 외, 2004).

다. 올바른 교육관과 직업윤리

유아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

육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유아교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는 기본적으로 유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서 편견을 갖지 않고, 공평하게 지도하고 유아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다른 동료들과 협동하고 사회에 봉사함으로서 교육의 발전과 나아가 교사의 지위 향상에 동참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이기숙 외, 2002).

2. 교사의 발달 단계

1) 교사 발달의 개념 및 특성

발달이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패턴을 따라 점차적으로 진보해가는 긍정적이면서 이상적인 변화나 발전을 말한다. 이러한 발달의 개념을 교사 집단에 적용해보면 이는 유아들처럼 교사 또한 교직생활을 통해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Katz, 1985). 이와 같이 발달적 관점에서 교사의 적응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교사 발달’이라고 부르고 있다. 교사발달이란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인 교직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Davis & Zaret, 1984). 초기에는 이러한 발달이론은 주로 유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졌으나, 점차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특히 성인 발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현경, 2009 재인용). 이러한 최근의 교사에 대한 발달적 관심은 이전의 능력중심 교사교육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김정란, 2000).

Burden(1990)는 교사가 초임교사로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교직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교사로서 필요한 여러 영역과 관련하여 가치관, 신념, 태도, 지식, 기능, 행동 등에 있어서 양적·질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Feiman과 Floden(1980)은 교사발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는 교사의 변화·발달을 위해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발달이론을 구성하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성인발달의 한 형태로 보고 교사의 발달을 설명하려는 것으로서 자아, 도덕성, 인지발달 등에 관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교사발달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현직교육과 전문적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교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은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교사발달은 교직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교직과 관련된 지식, 기능, 행동, 태도 및 관점에 있어서 교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Christensen & Fessler, 1980; Fuller, 1969; Fuller & Bown, 1975; Gregorc, 1973; Katz, 1972; Newman, 1978; Peterson, 1978).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교사발달이란 교직 경험이 점차 쌓여가면서 교육관, 학교관, 학생관의 변화 뿐 아니라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관심과 행동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에 관한 발달적 관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사의 발달단계와 그 특성에 대한 지식은 보다 적합한 교사교육과 장학이 이루어지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교사들의 전문성 발달과 교수효율성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현경, 2009).

2) 유아교사의 발달단계

예비 유아 교사들은 다양한 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 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 교사들의 이러한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발달 단계 개

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교사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는 교사로 하여금 동료 교사들도 자신과 비슷하게 교사 경험을 시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점차 발달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이윤경 외, 2004).

유아교사의 발달단계의 틀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Katz(1977)와 Vander Ven(1998)이 있다. Katz는 교사의 교직생활에 기초한 단계 이론을, Vander Ven은 교사 발달 단계를 생태학적 입장에서 교사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교사관심사 발달에 대한 관점을 Katz는 Fuller의 전문성의 발달과정 에 대한 논의에서 확장시켜 유아교사에 적용하였다(김현경, 2009).

Katz(1977)에 의하면, 유아 교사들은 생존단계(survival stage), 강화단계(consolidation stage), 갱신단계(renewal stage), 성숙단계(maturity stage)의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적, 전문적 발달이 이루어지며 각 단계들은 독특한 발달 과업과 훈련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4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인 생존단계(survival stage)는 초임 교사의 첫 1년에 해당되는 시기로, 교사의 주요 관심은 학급의 운영과 하루 일과에 필요한 준비된 활동, 유아들이 자신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지 등과 같은 주로 교사로서의 생존여부에 해당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 단계에 있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후원, 격려, 지도가 제공되는 것이다(이윤경 외, 2004). 또한 김정란(2000)은 교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방법과 유아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초임교사의 교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원장이나 경력 있는 동료교사 등의 즉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단계인 강화단계(consolidation stage)는 교직생활 2년부터 3년 정도의 시기이다. 생존단계를 거치면서 교사들은 어느 정도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

게 되면서 기존에 배운 것들을 보완하고 수정 할 수 있게 된다. 교수와 관련된 다른 업무나 기술을 배워가면서 문제를 가진 개별 유아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Katz, 1972). Katz에 따르면 이 단계는 교실현장에서의 도움뿐만 아니라 전문가, 동료교사 및 자문 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유아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방법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현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화영, 2009).

3단계는 갱신단계(renewal stage)로 약 3년에서 5년의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교사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보다는 아이디어, 자료, 기술, 지도방법 같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형식적·비형식적인 방식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과의 만남이 도움이 된다. 또한 전문적 협회의 참석, 다양한 분야에 관한 서적, 신문과 잡지, 영화 관람이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교수 상황을 비디오 촬영을 하여 보거나 다른 교사의 교수 상황을 보는 수업 참관,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등이 도움이 된다(김경은, 2011; 이영미, 2002).

4단계는 성숙단계(maturity stage)로 교사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빠르면 교직 경력 3년 내에 도달할 수 있으나 보통 5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완전한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철학, 성장과 학습의 본질, 학교와 사회의 관계, 교직원 등에 관해 나름대로의 안목과 관점을 갖게 된다. 교사들은 더 큰 사회의 맥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역사적 뿌리는 무엇인가?”, “성장과 학습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육적인 결정은 어떻게 행해지는가?”, “학교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교사는 전문적인가?” 등과 같이 더욱 심오하고 더욱 추상적인 질문을 스스로에

게 던진다. 자신의 일이 함축하는 것이 더욱 더 광범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경험은 이러한 질문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시기에는 전문가 협회나 세미나 참석, 학위 취득의 기회, 폭넓은 독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상호접촉 등이 필요하다(김정순, 2009; 김호정, 2002; 이윤경 외, 2004; 이은영, 2001). 앞에서 언급한 Katz의 4단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Katz의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단계와 필요한 훈련내용

발달단계	교직경력	주된 관심사	필요한 훈련내용
생존단계	1년 미만	· 교사로서의 책임감, 생존문제	· 지원, 이해, 격려, 위로받기 ·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수방법 익히기 · 정기적으로 지도 받기
강화단계	1년~3년	· 문제아동과 문제 상황	· 아동 관찰하기 · 문제해결방안 모색하기 · 문제 유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얻기 · 다른 전문가와 만나기 · 동료들과 정보, 생각, 감정 교환하기
갱신단계	3년~5년	· 새로운 교수방법, 지식, 정보 등	·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료와 만나기 · 서적, 신문, 잡지 읽기 · 다른 교실 참관하기 · 시범 유치원 참관하기
성숙단계	5년 이상	· 유아교육 철학과 역사 등 추상적 개념 · 유아교육과 지역사회 · 교육정책과정	· 회의나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하기 · 학위 취득 기회 가지기 · 다양한 영역에 근무하는 교육자와 만나기

출 처 : 이은영, 2001 재인용.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atz의 연구는 교직경력에 따라서 유아교사들의 욕구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는 교사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관심 분

야와 현직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김현경, 200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atz의(1977)는 유아교사의 발달단계를 4단계로 보았는데, Vander Ven(1988)은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보았다. 초보 단계(novice stage)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준비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유아교육을 현장에서 보조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시작 단계(initial stage)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학생들이나 유아교육분야에서 전문직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지식 단계(informed stage)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정교사 수준이며, 복합 단계(complex stage) 시기에 있는 교사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영향 단계(influential stage)는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여러 측면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되는 단계이다.

Vander Ven(1988)이 제시한 5단계 중 유아교사에게 속하는 단계로는 지식단계(informed stage)와 복합 단계(complex stage)라고 볼 수 있다. 3단계인 지식단계(informed stage)는 교사의 전문이 넓어지는 전문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의 교사들은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아 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있으며, 앞선 단계들보다 더욱 큰 사명감을 갖고 있다. 2단계보다는 발달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이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방법과 기술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라는 직업에서 전문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이전 단계와는 달리 상황과 관련된 문제나 체계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아의 부모나 가족과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4단계인 지식 단계(informed stage)는 그동안의 교사 생활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통합되는 시기로서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가, 장학

사 또는 교사 훈련가로도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시기이다. 활동이 더 발전되고 복잡한 문제나 상황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지니며, 유아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애쓴다. 이시기의 교사들은 담임교사, 지도 교사 또는 장학과 행정적 위치에서 자신보다 전문성이 낮은 단계에 있는 교사들과 일하며, 초보단계에 있는 교사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 또한 전문 단체에 관여하거나 워크숍 지도자가 되어서 이 분야에서의 지도력을 갖추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Katz(1977), Vander Ven(1988)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단계들은 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교사들이 서로 다른 관심사와 요구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사를 지원하고 돕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교사의 관심사에 따른 발달 단계는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정란, 2000; 김화영, 2009; 유순이, 2003; 이윤경 외, 2004).

3. 교육대학원의 목적과 기능

1) 교육대학원의 목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1조는 대학원의 종류를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3종류로 보았다. 일반대학원은 대학졸업자가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진학하는 것으로 순수학문을 연구하며, 전문 학술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한다. 전문대학원은 대학졸업자에게 각종 전문 직업분야에서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속한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순수학문 연구를 강조하는 일반대학원에 비해 응용학문을 연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특수대학원은 평생교육 기능의 내실화를 위해서 직업인 및 일반 성인들의 재교육과 계속교육 수요에 특수대학원이 부응해 줄 기대를 바탕으로 설립하였다(김민경, 2007 재인용).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종류와 목적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대학원 종류 및 목적

구 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목적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 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수업형태	주간	주간	야간·계절제
학위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석사과정(학칙에 따라 박사과정 설치가능)	석사과정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 학위(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가능)	전문 학위
교육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위주 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 위주교육
학부교원활용	학부와 연계	학부와 연계되어 있으나 별도의 대학원 전임교원 확보	학부와 연계
배출인력	연구개발 및 교수인력 양성	전문적 인력 양성	직업인 계속 교육

출 처 : 김준이, 2005 재인용.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며,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 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구분하여 규정되고 있다(이하나, 2008). 일반적으로 특수대학원에 속하는 교육대학원은 학문적 연구능력의 함양보다는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특수한 전문영역인 교육에 관련문제를 실질적으로 탐색, 정립,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초점은 학술이론보다는 전문분야의 실제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의 효과는 학문적 창조성보다는 사회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김성길, 2001).

교육대학원의 목적은 교육법 대학원 규정 교육부훈령 제328호 제108조에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밀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 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하나, 2008). 교육대학원의 교육 목적에 대해 박광욱(1993)은 “교원의 재교육을 통한 교직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방법 및 기술 등의 습득, 연구 결과의 교육현장 적용, 교육 개선과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는 순수 학문 보다는 응용학문을 중심으로 연구 하고, 사회봉사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대학원의 교육목적은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지도자(학교장, 교감 등), 또는 초·중·고등학교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적성 및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였다(이상현, 2010).

현행 교육법기본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8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각 대학학칙 및 특수대학원 통합학칙 등에 제시된 교육이념에는 모든 교육대학원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이 주종을 이룬다. 첫째, 현직교사들의 전문적 능력과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학위과정으로서의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현장전문가들의 연수를 위한 현장중심 연수목적, 셋째, 현

직교사들과 학교교육, 산업교육, 평생교육관련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양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향진, 2008 재인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대학원의 교육 목적이 ‘교육전문가 양성’이라면 그 교육을 받는 대상은 미래의 교육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교육전문가란 교육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교육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예컨대, 교육학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육연구원, 교육행정가, 대학 교수 및 강사, 사설 학원 강사 등이 교육전문가에 포함된다. 교육대학원은 이처럼 다양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교육기관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교육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대학원 교육 대상에 속하지만 교육대학원의 교육 대상은 일반적으로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로 크게 나뉜다. 첫째, 현직교사는 현재 초·중등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배정한 곳에서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육행정가, 교육대학의 교수 혹은 전임강사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예비교사는 미래에 교육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이들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또 다시 학생 신분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과 정식 자격증을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교육연구원, 사설 학원 강사, 일반 기업의 교육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이에 속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대학원의 교육 대상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은 이처럼 다양한 교육 대상을 교육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김주현, 2010). 교육대학원의 교육 목적이 각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교육대학원은 각 전공 분야의 학문에 대한 이론 및 실제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며,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키워 각 전문분야의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겠다(김민경, 2007).

2) 교육대학원의 기능

교육대학원의 기능을 일반대학원의 기능과 엄격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교육대학원의 교육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표 3과 같이 구분된다.

<표 3>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기능

구 분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대 상	대학의 학부과정 이수자	학부과정 이수자 및 현직교원
연 계 성	학부의 모 학과와 연계	교육대, 사범대 모 학과와 연계
주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학술인의 양성 · 순수학문 연구 · 대학교원 양성 · 고급 전문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교육 및 계속교육 · 고급 전문 인력양성 · 교원양성 · 상위자격 부여
보조기능	학문연구	재교육 및 계속교육

출 처: 김태희, 2004 재인용.

표 3에서 보듯이 현행 대학원의 교육은 크게 석·박사과정의 구분 없이

연구 기능, 대학교원 양성 기능, 고급 전문 인력양성 기능 및 사회봉사의 기능으로서 재교육과 계속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고급 전문 인력양성 기능을 주 기능으로 갖는다는 점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원이 공통적이다. 일반대학원은 대학에서 학사자격을 얻은 자가 상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진학하는 학부의 모(母) 학과와 접속되는 진학 하는 것으로 순수학문의 기능을 보조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과 연계성을 가진다. 현직교원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며, 학문연구 기능은 보조적인 개념이다. 또한 상위자격 취득과 교육학 석사학위 취득 과정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은 순수학문 연구를 강조하는 일반대학원에 비해 응용학문을 연구하고 사회봉사 기능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대학원의 주요 기능을 재교육 기능, 계속교육 기능, 고급 전문 인력 양성 기능, 교원양성 기능, 상위자격 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형주, 2007).

가. 재교육 기능

최근 지식과 정보량이 점점 팽창해지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위한 교육이 요구되며, 동시에 교원의 자질향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교원들의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수진, 2004 재인용). 교원의 재교육이란 교원의 현직교육으로서 현직에 있는 교원이 교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인 교직원관계 맞도록 지향시키는 일이다(김태희, 2004). 교사 재교육은 연수·강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연수원,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대학원은 전문적인 교사를 양성함과 동시에 재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나. 교사양성 기능

교육대학원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중에 교육실습을 마치면 교사자격증을 수여하여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교사자격기준을 보면 학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을 경우 교사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대학원 재학생의 대부분이 현직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사 양성 기관에 비해 자격부여 대상자의 비율은 적지만 교육대학원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학과 교직과정과 함께 중요한 교원양성기관의 하나이다(김향진, 2008 재인용).

다. 고급인력양성 기능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 첨단지식과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김수진, 2004). 전문직은 장기간의 교육과 고도의 지적능력이 필요하고, 봉사정신과 직업윤리와 자율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 특성을 지닌다. 교직은 이러한 전문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사는 고도의 지적능력과 지성을 가져야 한다. 즉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교육대학원은 전문직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창설된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교직에 있어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심귀섭, 1993).

라. 계속교육 기능

사회가 급변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능이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대에 있어서 계속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대학원이 점차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고급인력에 대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자의 지도자적인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원은 평생교육의 이념에 부합하여 교사에 대한 계속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도자적인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원은 계속교육의 이념에 부합하여 교원에 대한 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향진, 2008).

마. 상위자격 부여 기능

상위자격 부여 기능을 갖는데 교원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요구된다(최은성, 2003).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 생활에서 느끼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드러내줌으로서 교육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유치원 교사들이 자신의 변화되고 성장한 모습과 그 속에서 찾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재학 중인 S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4명과 A대, B대, C대, D대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유치원 교사 4명으로 총 8명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로서 현재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생들이다.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 동기와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양한 연령과 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심층적으로 들어보고자 목적표집에 의하여 경력, 직위, 결혼여부, 다양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사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교사들의 자세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A교사

A교사는 교육관련 학부를 졸업한 후 우연히 유치원에서 보조교사와 서무보조로 일을 하게 되면서 유치원 교사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를 시작으로 A교사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꿈을 키우고 2년제 전문대를 진학하게 하였고, 이어 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사학위까지 취득하였다. 졸업 후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유치원에서 16년이란 긴 시간의 경력이 쌓여있지만 자격증을 취득 후 정식

교사로 부임된 것은 4년이다. 자격증을 취득 후에 유치원에서 정담임을 맡게 되면서 더욱 유아교육 학문에 대한 갈망을 갖고 더 공부하기를 원했다. A교사가 근무하는 유치원의 특성상 주변의 동료교사들이 고학력자들이었으며, 원장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한 꿈을 갖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A교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 아이들과 질 높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저의 삶이 이 유치원 안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목표는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에도 갔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2011. 5. 3 A교사 면담)

(2) B교사

B교사는 A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석사학위 논문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질적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면서 연구 참여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B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유치원 교사 경력은 5년차이며,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을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전해주는 따뜻한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중·고등학교 때 친한 선생님들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그런 분들 보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유아교육의 길로 가게 된 것 같아요.

(2011. 5. 3 B교사 면담)

(3) C교사

C교사는 B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에 현재는 병설유치원 에듀케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과 출산 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병설유치원의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 현재는 병설유치원의 에듀케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예전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교사의 길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일반 직장을 다녔다가 다시금 자신의 대한 꿈을 위해 수능을 보고 4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진학하여 유치원 정교사를 취득하게 되었다. 현재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본 연구의 주제를 듣고 다른 교사들은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지 관심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른 교사들과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어 했다.

사실 대학원과 교사생활을 함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유치원을 관두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에 이 주제가 관심 있게 다가오네요. 대학원의 경험을 통한 교사의 발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2011. 5. 22 C교사 면담)

(4) D교사

D교사는 S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연구자와 친밀한 유대관계가 잘 형성 되어있는 교사이다. 유치원 경력은 7년차로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교사로서 만연해지고 나타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자극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현장에서는 많은 교사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다른 교사들과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같은 교육대학원 사람들이 모이니깐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 4. 12 D교사 면담)

(5) E교사

E교사는 C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유치원 교사 경력은 7년이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던 E교사는 아동학과를 전공하다가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의 교육학과로 학사 편입을 한 후 다시 유아교육으로 복수전공을 하였다. 유아교육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학사 학위 취득 후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연구자는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E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E교사는 본 연구가 교육대학원 생활을 하는 교사들이나 준비 중인 많은 유치원 교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꺼이 연구 참여자가 되었다.

교육 대학원은 주경야독이죠.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기 위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열심히 한다. 부지런하다.” 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교육대학원 생활을 하시는 교사나 혹은 준비 중이신 선생님들에게 이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1. 5. 12 E교사 면담)

(6) F교사

F교사는 연구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학원 생활을 함께 지내온 동료 교사이다. F교사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후에 방송통신대학에 가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 오게 되었다. 전문대 졸업 후 사립 유치원에서 3년을 근무한 후 1년간 임용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뒤 현재는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경력은 8년차이다. F교사는 학교를 오가는 시간이 4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몸이 힘들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컸으며, 유아교육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다. F교사는 면담 기간 중에도 진실 된 모습으로 본 연구에 적극 참여해주었다.

대학원이라고 하면 교사양성과 현직 교사의 재교육이 생각나요. 저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더 참된 교육자로 발전하고 싶고, 재교육을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요.

(2011. 5. 14 F교사 면담)

(7) G교사

G교사는 D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현재 유치원에서 원감 직을 맡고 있다. G교사는 10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과 동시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사학위 취득 후에 유아교육에 대해 더 공부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G교사는 면담을 하면서 연구자와 rapport(대포)형성도 잘 형성되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교육대학원 생활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다양한 경험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

하고 용원을 아끼지 않았다.

많은 교사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을 때 본인 뿐 아니라 크게 보면 유치원에도 기여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 되요.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기회가 될듯해요.

(2011. 5. 29 G교사 면담)

(8) H교사

H교사는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중 경력이 가장 많은 14년이며,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직을 맡고 있다. H교사와는 같은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평소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특별한 친분은 없는 사이였지만, 거리낌 없이 적극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였다. H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 한 후 원을 운영하는 꿈을 갖고 사립유치원에서 자신만의 교육관과 철학을 갖고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어린이집·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 이외에도 많은 사업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H교사는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만남을 가졌고, 14년이라는 경력 속에 묻어나는 다양한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들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궁금해요. 대학원하면 사자성어로 주경야독이 떠오르고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큰 행운인 것 같아요.

(2011. 4. 12 H교사 면담)

<표 4> 연구 참여자 배경

명명척도	연령	경력	학력	직위	대학원명	결혼여부
A교사	37세	4년차	2년제 졸 (방송통신대졸)	사립유치원 교사	S대	미혼
B교사	32세	5년차	4년제 졸	사립유치원 교사	A대	기혼
C교사	31세	6년차	4년제 졸	사립유치원 교사	B대	기혼
D교사	30세	7년차	3년제 졸 (학점은행제)	사립유치원 교사	S대	미혼
E교사	35세	7년차	4년제 졸	사립유치원 교사	C대	기혼
F교사	30세	8년차	2년제 졸 (방송통신대졸)	공립유치원 교사	S대	기혼
G교사	35세	10년차	2년제 졸 (방송통신대졸)	사립유치원 원감	D대	미혼
H교사	37세	14년차	4년제 졸	사립유치원 원장	S대	기혼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1년 4월 12일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유치원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교육대학원이 교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연구 참여자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 듣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사용하였다. 연구기간동안 연

구의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유치원교사들의 저널쓰기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e-mail이나 메신저, 전화로 자료를 보충하였다.

1) 개별심층면담

면담질문은 개방적질문과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1:1 개별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한 사람당 평균 3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같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치원 교사들은 평소 친분이 있기 때문에 3회 이상의 만남을 가지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면담 시간은 1회에 40~6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강의 후 빈 강의실, 커피숍에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고, 유치원 교사들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스케줄을 조정하여 만남을 가졌다. 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사들은 스케줄 조정의 어려움으로 연구자와 같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치원 교사들과의 만남보다는 조금 적은 평균 1~2회의 만남을 가졌고, 연구 참여자의 유치원이나 커피숍 등에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와 교육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얻는 의미가 어떠한지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담 후 즉시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교육대학원 생활에 대한 개별심층면담의 질문 내용의 예는 표 5와 같다.

<표 5> 교육대학원 생활에 대한 개별 면담 프로토콜 및 질문 내용

프로토콜	질문 내용
1차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의 소개 · 유치원현장에서의 경험 (어려움) ·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 이유 · 교육대학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
2차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면담의 의문점, 궁금한 사항 · 교육대학원에서 느낀 경험(에피소드) · 교육대학원 생활에서의 만족 · 교육대학원 생활에서의 어려움
3차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면담의 의문점, 궁금한 사항 · 교육대학원에서의 배움이 유치원 현장에서 미친 영향 · 교사로서의 역할, 태도의 변화 · 교육대학원 진학 한 후에 자신의 달라진 점 · 교육대학원 생활을 통한 교사의 보람과 성장 · 교육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앞으로 바라는 점 · 교육대학원의 의미

2) 저널쓰기

개별심층면담과 함께 유치원교사들의 교육대학원 생활에서 느끼는 경험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와 래포(rapport)가 잘 형성되어 있었던 4명의 교사에게 저널쓰기를 부탁하였다. 저널쓰기는 연구가 시작된 4월부터 자료수집이 끝나는 7월말까지 기록하도록 하였다. 저널쓰기는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수업 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해본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에 남은 일, 유아들의 반응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며 사건을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에 대한 느낌, 딜레마 등을 자세히 적도록 하고 연구자의 e-mail로 보내도록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이 작성한 저널쓰기의 분량은 A4용지를 기준으로 총 25장이다.

3) 기타 자료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사하여 자료화 하였다. 연구자는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한 후에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내용을 회상하면서 연구 과정 중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받은 인상이나 느낌, 면담 과정 전·후의 분위기나 면담과정 중에 기록하지 못한 부분은 노트에 기록하면서 일기형식으로 연구를 마칠 때까지 작성하여 연구 자료에 보충하였다. 연구자의 연구일지는 심층면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유치원 교사들의 면담 녹음자료, 현장기록노트, 유치원 교사들의 저널쓰기 등이다. 분석을 위해서 수집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요한 주제별로 나누는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며, 연구문제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 ‘교육대학원에서의 경험’으로 크게 나누어 범주화하여 분류된

범주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위 범주들을 구분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를 사용하였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동료교사에게 자료 분석 과정을 보여주어 연구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해석의 오류를 줄이도록 노력하였고, 조언을 구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대학원 진학 동기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를 알아본 결과 ‘갈등과 어려움의 해결 통로 찾기’, ‘정체 된 나 극복하기’, ‘사회적 편견 극복하기’, ‘전문가로 거듭나기’로 범주화 되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느끼면서 스스로 교사로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을 교육대학원의 진학을 통해 보완하고 채워나가기를 원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많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있었고, 경력이 점차 쌓이면서 만연해지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학력에 대한 갈망이었다. 유치원의 특성상 다양한 학력을 가질 수 있는데, 전문대 졸업생과 4년제 졸업생,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전문대를 졸업하고 교직생활을 하는 교사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부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시선과 편견은 교사들을 상위학교로 진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지적인 자신의 욕구와 갈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대학원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갈등과 어려움의 해결 통로 찾기 : ‘내가 정말 전문적인 교사일까?’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현장에 근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치원에서 만나는 유아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교사와 원장 등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들이 교사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교사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치원 교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유치원 교사의 인간관계는 학습자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교직원인 교사, 원장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초임시절에 특히 많이 경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의 갈등 대상은 학습자인 유아들과의 관계였다고 하였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유치원 현장에 왔지만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의 부족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할지 막막했다고 회상하였다. 즉,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나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등 아이들을 지도하는 전반적인 부분이 이 시절의 어려움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립유치원 1년차 때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학급당 인원이 꽤 많은 유치원에 처음 들어갔고 멘토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지도해줄 수 있는 부분에 한정이 있어서 동료교사들과 연대를 맺고 수업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랬었어요.

(2011. 5. 14 F교사 면담)

F교사는 초임교사 1년차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였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이 미숙하고 교사 대 유아비율이 많아 초임교사인 F교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F교사는 교수방법 기술을 높이기 위해 동료교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했다.

초임 때는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학부 때 배웠던 이론들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제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2011. 5. 22 C교사 면담)

C교사는 대학에서 배웠던 이론의 내용들이 현실 상황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고 하였다. 즉, 아이들과 지내다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대처방법이 미숙하고, 이론에 국한되어 알고 있던 지식들이 실제에선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를 큰 부담으로 느낀다고 이야기 하였다. 특히 경력이 많지 않는 초임시절에는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이 미흡하고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미숙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초임교사라는 것으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비춰질까봐 염려하였고, 학부모들이 초임교사를 반기지 않는 모습들이 간접적으로 비춰져 더욱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기도 하였다. 경험과 연륜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과는 달리 나이가 어리다는 부분이 학부모들에게는 유치원 교사를 신뢰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어머니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저를 좀 쉽게 보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으니까.

(2011. 5. 14 F교사 면담)

초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와의 상담이었어요.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교사인 제가 생각하는 점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켜드릴지가 많이 고민되었었고, 그 부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2011. 5. 22 C교사 면담)

위의 면담 내용과 같이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신뢰감을 주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들은 부모상담기법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하여 교육대학원을 진학해 수업을 통해 배워나가길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의 위계질서 속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원장과의 관계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원장에게 어떤 시각으로 비춰질지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며 좋은 교사의 모습으로 비춰지려고 노력하였다. 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편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원장과의 관계가 어긋나거나 갈등이 생기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웠다. 원장과 교사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유치원 교사들의 교직생활을 힘들게 하였다. F교사는 초임시절 원장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하였다. 평소 원장이 F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소한 일에 대해 그 책임을 F교사에게 떠넘기고, 능력 없는 교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였다고 했다. 교사와 아이들과의 상황에서 특정한 문제가 되는 이유들은 배제하고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책임한 교사로 낙인 시켰다고 하였다.

2년차에는 유치원을 옮겼는데 원장님의 관계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유치원을 그만두고 싶었던 일이 되게 많았어요. 유치원에서 존재하는 비밀스러운 문서가 있었을 때 그게 없어졌으면 누구 한명을 집어서 지목을 하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교사를 꼭 집어서요. 저는 문서를 본적이 없었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예를 들어 교사와 유아하고 있을 때 많은 실수들이 일어나는데 접퍼를 못 찾아서 아이가 굉장히 어려워하다가 결국은 원장님 귀에 들어간 경우에는 교사를 자질 없는 교사라고 보고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 실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아이가 옷을 못 찾는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도 교사의 잘못으로 보고, 또 원아모집 관련해서도 원아모집을 할 때 안 되면 “니가 우리유치원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2011. 5. 14 F교사 면담)

사립유치원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교사들을 업신여기는 원장님 밑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임용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의 교육적 철학이나 신념들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곳이 사립유치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2011. 5. 14 F교사 면담)

위의 면담내용에서 보듯이 원장의 독재적인 경영방침과 비논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로 F교사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고, F교사 자신의 교육철학에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었다. F교사와 원장간의 관계는 결국 F교사가 사립유치원을 그만 두고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임용시험뿐만 아니라 학업을 멈추지 않고 교육대학원까지 진학을 하여 교사로서의 긍지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였다.

2) 정체된 ‘나’ 극복하기 :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지.’

유치원교사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 외에도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수활동, 교재준비, 수업계획, 환경구성, 유아들의 생활 및 지도, 행사 준비 및 진행, 사무업무, 차량지도의 업무 뿐 만 아니라 이외에도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늘 상냥하고 친절함 모습으로 다가가며 신뢰받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교사 대 유아의 높은 비율과 유치원의 행정적인 업무까지 과도한 업무들로 인해 교사들은 정신적, 체력적으로 소진되고 있었다. 즉, 유치원 업무의 특성상 일의 한계가 보이지 않아 늦은 퇴근이 잦아지고, 개인시간을 누릴 수 없어 교사들은 점점 지쳐갔다.

이렇게 교사들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서 오는 소진은 교사들을 점점 지치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교육대학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긍정적 에너지와 활력을 찾길 원했으며, 교육대학원에서의 배움과 도전은 유치원 교사들에게 교사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거의 퇴근시간은 11시~12시가 기본이었고 아침 출근은 7시에 했지만 아이들의 상황이나 나에 대한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매일매일 일에 힘겨워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2011. 5. 14 F교사 면담)

A교사는 담임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전반적인 행·재정적인 업무를 도맡아 유치원의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A교사는 교원자격증 취득 전부터 오래 동안 근무를 함으로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로서 다소 부담스러운 유치원의 재정 업무와 교사의 역할을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

유치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맡아서 했어요. 전 이거 하기 전에는 유치원의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엄마 같은 역할, 이유치원의 살림을 맡아했죠. 내 일 말고도 플러스 되는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치원 일을 하죠.

(2011. 5. 3 A교사 면담)

H교사도 사립유치원에서 자신이 미래에 유치원을 경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장의 기대와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일을 수행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육체적으로 점점 H교사를 지치게 했다고 회상하였다.

제가 사립유치원에서 한 6~7년 있었는데 그때 그 원이 선생님이고 뭔가 배워가려는 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하는 포인트는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진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원장님이셨기 때문에 나를 좀 채워야하는데 채우기보다는 내안에 있는 것이 몸에 있는 게 다 뽑아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지쳤었어요.

(2011. 5. 17 H교사 면담)

유치원에 오면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고 아이들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공문도 해야고 그것 말고도 학부모들의 관계도 유지해야하고 아이들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2011. 4. 12 D교사 면담)

D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교사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고 이야기하였다. 유치원 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왔는데, 현재 경력이 7년차가 된 지금의 모습은 꿈꿔왔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유치원 교사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과는 관련 없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 유치원교사 된 것이 후회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한 곳에서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게 되기 마련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되자 점점 나태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치원교사들은 항상 같은 교수방법과 활동자료로 아이들에게 지도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기보다는 오히려 고갈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떤 발전이나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교사들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싶었으며, 무료해진 자신의 삶에 활력소를 넣어줄 새로운 일을 찾아 실천하려는 도전을 꿈꾸게 되었다고 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자신의 나태해진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자 하였으며, 질 높은 교육 실천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

었다.

5년쯤 되니까 생활패턴이 똑같잖아요. 아이들한테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교사로서 얻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도 주고 자극도 받고 현장에 변화가 있어야지 너무 5년 동안 있으니까 무료해지고 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대학원에 가게 되었어요.

(2011. 4. 12 D교사 면담)

F교사는 사립유치원에서의 어려움을 통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학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공립유치원 교사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고 난 후 어느 날 갑자기 나타한 일상에 만연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으며, 그래서 F교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길 원했고, 그 길이 교육대학원 진학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립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점점 나타한 일상에 만연되어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 하겠다.' 해서 교육대학원에 오게 되었죠.

(2011. 5. 14 F교사 면담)

현장에 오래 근무하다보니, 무언가 안일해진 것 같고, 좀 더 배워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들어서 교육대학원을 오게 되었어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예전부터 대학원 진학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2011. 5. 12 E교사 면담)

E교사 또한 안일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배움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G교사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경력을 쌓아오면서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즉, G교사는 유치원에서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워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했다.

유치원 교사가 된 것을 후회 한 적은 없지만 유치원을 다니는 내내 우물 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2011. 5. 29 G교사 면담)

유치원 교사들은 많은 업무로 인한 소진과 스트레스, 오랜 경력으로 인한 무료함과 정체된 자신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선택 도전할 용기가 나질 않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새로운 어떤 일에 도전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응원과 격려는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큰 힘이 된다. 유치원 교사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있을 때 주변의 동료교사, 원감, 원장, 은사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 자신감을 갖고 변화를 시도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대학 은사님께서 대학원을 가라고 권유해 주셨는데 미루다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대학원 공부일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휴학을 하게 되더라도 한번 경험삼아 시험 보자 했는데 합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면접 보러 간 날, 첫 수업 들은 날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공부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선한 자극이었고 다시 공부한다는 게 좋기도 하면서 잊고 있던 교사로서의 자질과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2011. 5. 29 G교사 면담)

유치원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서 원장선생님이 대학원 갈 생각 있으면 가라고 적극 권해주셨어요. 저는 대학을 2번 갔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간 거고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간 거여서 너무 즐겁게 공부 했었어요. 현장에 좀 있다가 가겠다고 했는데 보내주시고 가라고 해주시니까. 주변에서 선생님들도 거의 다니고 계셨고, 원래부터 갈 생각은 있었지만 현장에서 4~5년 있다가 가려고 했거든요. 조금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시기가 조금 빨리 왔던 것 같아요.

(2011. 5. 3 B교사 면담)

G교사는 은사님의 권유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다시 공부한다는 것이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며, 자신의 선택에 무척 만족스러워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B교사 또한 원장님의 권유로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계획보다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어서 매우 즐겁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선생님은 어쩔 수 없는 교사다.” 그쪽으로 공부를 더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명예원장선생님은 저한테 항상 재주가 너무 많지만 구슬이서 말이라도 끼워야지 보낸데 그 구슬을 다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엔 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나 자신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멈추지 말고 하라고, 박사까지 하라고 하시는데 혹시 길이 된다면 내가 석사까지 했으니 박사까지 하고 싶어요.

(2011. 5. 3 A교사 면담)

주변에서 잘할거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주셨고 “선생님 같은 사람이 교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하게 되었어요. 공부 안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연수가 있으면 바쁜데도 선생님이 들으면 너무 좋은 연수라고 해서 받고 여름방학에도 좋은 연수들이 많은데 교사들하고 꼭 같이 가서 들었어요. 제가 교사가 아닐 때도 교사처럼 교사가 연수받는 것 똑같이 교사로 해주셨어요.

(2011. 5. 3 A교사 면담)

A교사도 원장의 격려와 응원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더 참된 교사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원장은 A교사에게 늘 칭찬해주며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주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원자격증이 없이 근무를 할 때도 다른 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었다고 했다. 즉, 유치원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A교사를 교사 연수에도 데리고 가서 함께 교육받게 해 줌으로써 A교사에게 유치원 교사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자극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장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A교사는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자신의 꿈과 인생을 펼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보였다.

3) 사회적 편견 극복하기 : ‘내 학력이 창피해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자의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하다. 총 8명의 유치원 교사들 중 4명은 4년제를 졸업 후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나머지 4명의 유치원 교사들은 전문대를 졸업하여 방송통신대학교와 학점은행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지만 전문대를 졸업한 4명의 유치원 교사들은 최종학력을 바꾸고자 하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사회적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이 싫었고, 그 시선들을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최종학력에 대한 미련은 교육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들은 최종학력을 높이고 자신에게 주는 인지도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전문대를 졸업한 유치원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받은 편견과 시선으로 인해 받았던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면담을 통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최종학교의 경력사항을 바꾸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늘 최종학교를 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라고 하면 누군가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싫어서 그 학교를 바꾸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1. 5. 14 F교사 면담)

한 유치원에서 16년 이상을 근무해온 A교사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의 배려로 유치원에 근무하며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A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로 대학을 다시 진학해야 했다. 이런 A교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에서 많은 배려와 지지를 해주어 A교사가 유아교육과 2년제 전문대를 입학할 수 있었다고 했다. 2년제 전문대를 졸업 후 학벌에 대한 미련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교육대학원에까지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A교사는 유치원에서 배려해주지 않았다면 학교를 다시 가고 배움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장, 원감, 동료교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동료 교사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 중이었기 때문에 A교사는 자격지심을 느낀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난 안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아예 학업을 포기하고 두려워했지만 주변의 지인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고, 이를 통해 A교사는 교사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동료교사들의 좋은 학벌은 A교사를 배움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를 해보자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학벌이 너무 좋으시니까 학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엄두가 안 났죠. 이 유치원에서 교사를 한다는 생각은 안했어요. 학벌위주로 받는 곳이었어요. 다 대학원 나오시고 그냥 전문대 나온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질 좋은 교사를 뽑기 위해서 학력이 좋은 분들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포기를 했죠. 안하려고 했죠. 너무 험난하구나. 좋은 환경의 선생님만 교사가 되는 줄 알고 여기 원장선생님은 저보다 더 오래 되셨죠. 처음 졸업하자마자 오셔서 일을 하게 되었고 석사도 하시고 지금 박사하고 원장하고 계시니까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참 자극도 많이 받고 자격지심도 가졌고, 교사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가져서 여기서 못하겠다. 다른 곳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2011. 5. 3 A교사 면담)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교사로서의 재교육과 학업에 대한 열정, 새로운 지식의 배움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종학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학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떠했는지는 교사들의 면담내용과 저널쓰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제 내 스스로에 대해 주는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국방송통신대 쓰면서 가슴 떨리고 나는 창피하지 않지만 누가 나를 그렇게 볼까봐 내가 갖고 있는 학력에 대해서 부끄러운 적이 없었지만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돼서 좋아요.

(2011. 5. 14 F교사 면담)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 나의 최종학교는 서울 소재 전문대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였다. 병설에 발령을 받으면서 학력차별을 조금은 남아 있음을 느꼈다. 초등교사보다 더 어려운 공부를 끝내고 임용이 되었지만 학력의 벽은 조금씩 높아지지만 했고, 급기야 학력과 실력을 동일하게 보는 사회적 잣대에 나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속상함과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는 강한 부담감으로 시작한 공부, 공부를 끝내고 나니 나도 이제 어엿한 석사학위를 가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2011. 6. 16 F교사의 저널)

교육대학원을 시작한 계기가 학벌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싶었고, 아직까지도 학업에 대한 사람들이 편견이 여전히 나를 움츠러들게 하였다.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저 이런 학교 다녀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내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2011. 6. 5 D교사의 저널)

사례에서 보듯이 최종학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는 동기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동기에서 교육대학원을 진학한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였다는 것만으로 또 이를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만으로도 매우 만족해하였다. 또한 최종학력의 향상은 유치원 교사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며, 유치원 교사에게 자신감을 주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4) 전문가로 거듭나기 : ‘지적인 지식을 겸비한 똑똑한 교사’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지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다. H교사는 새로운 이론을 배운다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유아교육의 이

론이나 지식들을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다시 상기시키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랜 교사생활과 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며, 교육자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냥 스스로 지적인 욕구를 만족하고 싶었어요. 자기개발이라고 해도 좋고, 이전의 학부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현장에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전혀 다른 분야예요. 저는 조금 더 교육자답고 싶어서 '심화학습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2011. 4. 12 H교사 면담)

E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이론적인 것 뿐 만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론과 현장의 접목을 통해 유치원 교사들이 더욱 현장감 있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론을 구구절절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을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반면 이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유치원 교사의 부족한 교수방법이나 기술들이 그대로 묻어나오기 때문에 이론과 현장의 실제적인 교수방법은 함께 배우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E교사는 이러한 이론과 현장의 기술을 교육대학원에서 배우길 기대했다.

저는 교육현장과 공부를 병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어요. 이론적인 것 뿐만 아니라 현장과 접목된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교육대학원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고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11. 5. 12 E교사 면담)

D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유치원에서 7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어린 영아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다고 하였다. 물론 대학에서 영아에 대해 학습하지만 직접 어린이집이나 어린 영아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영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이러한 궁금증을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영아에 대해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고자 했다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점차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횟수가 잦아지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들이 있었으며 따라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과 이론을 배우고 싶은 의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특별히 영아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 영아의 발달이나 적합한 교구가 무엇이 있는지 영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1년, 2년 있으면서 느낀 것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유아들의 문제행동이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런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며, 부모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는 것이 좋을지 그 유아가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동심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궁금했던 이론들을 대학원에 가서 배우고 싶어요.

(2011. 5. 2 D교사 면담)

이와 같이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거나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에 대한 습득을 통해 좀 더 전문가다운 교사가 되겠다는 의지에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교육대학원을 통해 겪는 유치원 교사들의 경험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서 느끼는 경험을 분석한 결과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새롭게 느끼게 된 어려움, 변화 및 보람으로 범주화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움’은 두 마리 토끼잡기, 원장과 동료교사 눈치 살피기, 과제와의 전쟁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화’는 탄탄해진 이론, 현장의 적용, 동료교사를 통해 얻는 깨달음, 커진 생각주머니, 나도 연구자로 유목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보람’은 나에게 칭찬하기, 우물 안 개구리 세상 밖으로 라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교육대학원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유치원 교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학업을 이어나간 유치원 교사들은 이론이 더욱 탄탄해지고, 이론을 바탕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면서 교사로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대학원에서 만나는 동료교사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또 다른 배움의 즐거움도 느끼게 되고, 더 넓고 깊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어 연구자의 마음으로 더욱 고민하는 교사의 모습이 되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발전되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교육대학원에서의 배움과 생활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너무나 알차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열정과 힘을 교육대학원에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1) 어려움 느끼기 : 쉽지 않은 길

새로운 도전이라는 꿈을 안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설레고 궁금한 마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대학원의 생활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유치원 교사들은 금방 깨달았다. 유치원에서 많은 업무를 하며, 학업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일이었으며,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평소 퇴근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야하기 때문에 동료교사와 원장의 눈치를 살피며 노심

조사하는 마음으로 다녀야 했다고 하였다. 교육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논문작성이 낯선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어리둥절한 일이었다, 그것들을 알고 배워나가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더욱 보람과 값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 두 마리 토끼 잡기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 진학 후 일, 양육, 가사, 학업 등 여러 가지 일을 함께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과 기혼인 여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교육대학원에서의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미혼과 기혼의 교사들로 구성하였다. 8명의 연구 참여자 중 5명이 기혼이었으며, 이 중 자녀를 둔 유치원 교사는 4명이었다. 미혼인 교사에 비해 기혼인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일과 학업 뿐 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부담까지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일과 병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가는 시간이 4시간이 걸려서 퇴근시간에 나온다고 해도 이미 지각을 하게 되고 조금 일찍 나왔어야하는데 그렇게 일찍 나오기에는 여의치 않아요. 그리고 양육하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갓난아기라서 휴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 학기 휴학을 했는데 2학기 연속 휴학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학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2011. 5. 14 F교사 면담)

F교사는 교육대학원을 입학 한 후에 임신과 출산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복학 한 후에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왕복 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하며 학업을 병행하였다. F교사는 수업이 끝나면 갓난아기를

맡겨둔 베이비시터에게 전화를 하며,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다. 아직 엄마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에게 일과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많이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이야기하였다. F교사는 이제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그동안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힘든 시간이었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욱 강한 사람이 되었고, 너무나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러한 F교사의 행복한 마음은 저널쓰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

나는 임신 중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1학기 중에 출산을 했다. 출산과 학업, 그리고 1학기 휴학, 또 다시 시작된 양육과 학업, 일, 그리고 가사까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에 우선순위를 정해 조금씩 해내가며 엄마로서, 교사로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어둡고 두터운 안개가 질수록 그날 하루의 태양은 더욱 밝아오듯, 내 인생도 대학원 진학과 졸업으로 또 다른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되었다.

(2011. 6. 16 F교사의 저널)

C교사도 F교사처럼 일과 학업, 가사 일을 병행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교육대학원에서 주어지는 과제나 못다 한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평일의 시간보다는 주말의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주부라는 또 다른 위치에서 C교사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였다. C교사는 학생으로서의 일, 엄마로서의 일, 아내로서의 일, 며느리로서의 일을 소화해내야 했다. 가족행사에 참석하거나 육아를 병행하면서 과제나 밀린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리였으며, 육체적으로 C교사를 지치고 힘들게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저는 학생이자 교사, 주부이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어려워요. 보통 주말에 과제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족행사, 육아 등으로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니까 평소에 잠을 늦게 자는 등 그런 점이 힘들었어요. 평일에는 아이 키우고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지쳐서 과제하기는 어렵고, 주말에 신랑에게 아이 육아를 맡기고 과제를 하면 되겠지 했는데 가족행사 모임이나 생신 등으로 인해 시간이 안 날 때가 많아서 그 점이 좀 힘들었어요. 시부모님도 쉬지 말고 대학원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오

게 되었는데 막상 과제에 공부에 치이는 제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하시기도 하네요.
(2011. 5. 22 C교사 면담)

H교사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영 이외에도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관리자인 위치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준다고 했다. 힘들고 지치지만 H교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면담 중에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다른 일하고 병행해야하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누구나 중압감이나 스트레스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일을 하시면서 하니까 힘드시겠죠. 뭐 일을 몇 가지하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뭔가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2011. 4. 12 H교사 면담)

교육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유치원 교사들은 많은 과제나 학업으로 인해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유치원 일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 가서 수업 듣고, 과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부족했고, 피곤이 쌓이고 누적되면서 점점 교사들은 건강에 무리가 오게 되었다.

과제와 일을 함께 병행하며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신력으로 버텨가고는 있지만 특히 너무 무리한 탓에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잦은 감기나 몸살이 와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공부를 하려면 건강이 최고인 듯 해요.
(2011. 5. 12 E교사 면담)

새벽 5시까지 과제 하고 2시간 자고 유치원일 하고 학교 가고, 그런 날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과제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 주말에 많이 했는데 주말에도 유치원 일이 있는 경우는 정말 난감했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도저히 안 될 경우는 전화해서 유치원 일을 쉬고 있는 예전동료나 친구에게 제 과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몇 개 찾아달라고 하거나 가끔은 급하게 과제를 해 내게 될 때 제대로 공부다운 공부가 아니라 과제를 위해 시간 맞추는 느낌이 들어서 어려움보다는 속상했어요. 그리고 다 그럴겠지만 저희 동기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전공 교수님과 학생들에게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속에 있

으면서 따라가려고 하니깐 힘들었지만 얻은 게 많았어요.

(2011. 5. 29 G교사 면담)

G교사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과제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발생하기도 하였다. 교육대학원에 가서 교사로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던 G교사는 시간에 쫓겨 과제 제출에만 전념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속상함을 보였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2) 원장과 동료교사 눈치 살피기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원장과 동료 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대학원에 다녀야했다. D교사는 유치원에서 원장이 대학원 진학에 대해 처음에는 지원해주었지만 점점 유치원 일을 소홀히 하고, 수업이 있는 날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 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한다. D교사는 경력이 7년차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경력이 제일 많아 유치원의 전반적인 업무와 실정을 잘 알고 있었다. D교사가 대학원에 가는 날에는 다른 동료교사에게 일을 위임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을 했지만 종종 실수가 일어나서 그 책임을 D교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고 하였다. 특히 유치원에서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하고 학교를 가는 날에는 유치원에서 원장과 동료들을 눈치를 보며 퇴근해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지금은 원장님 눈치가 좀 보여요. 왜냐하면 학교 가려면 좀 일찍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3일을 가니깐 작년에 제가 2번 왔는데 10시까지 수업을 들으니깐 너무 힘든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 끝나는 걸로 3번을 했는데 그게 원장님 보는 눈에는 더 아닌 거예요. 유치원 일을 제가 자꾸 놓치니깐 그게 맘에 안 드시는 거지요. 대학원 간다

고 갔는데 유치원 일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놓치고 중요한 것들도 자꾸 놓치니깐 제가 담당하던 부분을 다른 선생님께 위임하고 저는 뒷걸음질 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2011. 5. 2 D교사 면담)

F교사는 공립유치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보다 교사가 적은 편이라고 하였다. 현재 F교사가 근무하는 유치원에는 F교사를 포함해 2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F교사가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에는 장거리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해야 한다고 했다. F교사가 유치원 업무를 미처 다 마치지 못할 때는 나머지 교사가 업무를 마칠 때까지 퇴근을 못하기 때문에 늘 동료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D교사와의 면담 내용에서도 동료교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나타났다.

공립유치원의 특성상 교사가 2명밖에 없는데 내가 빠지면 누군가 한사람이 남아서 업무를 마쳐야 하니까 그 부분이 어려웠고 너무 미안했어요.

(2011. 5. 14 F교사 면담)

동료선생님들의 퇴근시간이 늦어지기도 해요. 내가 주임이기에 내가 시킨 일들을 처리하고 가기위해 퇴근시간이 다소 늦어지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부분도 그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가는 적이 생겨 많이 미안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2011. 5. 2 D교사 면담)

(3) 과제와의 전쟁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 진학 한 후 과제와 논문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보였다. 대학 때 했던 과제와는 달리 원서로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작성하면서 어떻게 과제를 해야 하는지 과제 수행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나타냈지만 이런 배움을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전 1학기 때 원서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첫 1학기 때 그걸 맡아서 대학원 첫 시작이 너무 힘들었고 잠을 못 잤어요. 원서를 해석하는데 그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잠을 못 잤죠.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힘들었어요. 특히나 원서는 다른 논문을 찾기 위해서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거 지나고 나니까 원서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논문 찾는 게 수월하게 됐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2011. 5. 3 A교사 면담)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업은 학생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교육대학원 수업은 대학과 달리 자기 자신이 모든 자료를 스스로 찾아서 정리해야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그 시간을 모두 자신이 이끌어가야 한다. 따라서 공부하는 입장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대학원에서 주어지는 과제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H교사는 유치원에서 원장의 직위를 맡고 있어 유치원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지거나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과는 달리 항상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논문의 과제가 있을 때 관찰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질적 연구는 하지 못했다고 한다. 교수님과 유치원의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해 다른 교사 반의 녹화된 내용을 보거나 문헌연구로 과제를 대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과제할 때 실행연구로 소논문 쓰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여건이 안 되니까 어려워요. 그런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3학기라서 논문계획서 제출해야하는데 질적 연구를 포기했어요. 그런 시간을 할애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교 오기 전까지 제가 원에서 운영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원의 선생님들께 사

정을 이야기하고서 아이들의 모습을 녹화한 것을 보고 했었죠.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하진 못하니깐.

(2011. 4. 12 H교사 면담)

면담에서 보듯이 H교사는 유아들을 직접 관찰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용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라 교수님들께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양해를 구하거나 유치원 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였다고 했다. 또한 교육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써야하는데 교사들에게 논문은 가장 어렵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저희 학교는 분위기가 좀 달라서 논문 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일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이 논문 통과하는데 1명 정도밖에 못해요. 보통 2~3년씩 써요 논문을. 프로포절을 하고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바로 졸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들 되게 열심히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저희는 교수님이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대학원이나 별다르지 않게 한다고 하셨어요. 잠을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서로 공부 할 때는 거의 잠을 일주일에 2~3시간밖에 못자고 그랬어요. 물론 논문지도해주시면 잘 해주시지만 한 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조사하나 체크하시고 그래서 한 달 써갔는데 5줄 쓴 적도 있어요.

(2011. 5. 3 B교사 면담)

위의 면담에서 보듯이 B교사는 논문을 쓰면서 지도교수가 엄격하게 논문 지도를 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며 논문을 썼다고 하였다. B교사는 결혼을 했고 어린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가면서 논문 쓰기에 힘썼다고 했다. 가족의 지원과 도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B교사는 몸은 힘들고 고되었지만 질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지도해주신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2) 변화 느끼기 : 전문가로서의 ‘나’

(1) 탄탄해진 이론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서의 배움을 통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아이들과 지내며 잊고 있었던 이론에 대해 다시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대학 때 배웠던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이론의 내용들을 수업시간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교육대학원에 진학 한 후 유치원 교사들은 탄탄해진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적욕구에 대한 충족감을 느끼고, 재교육을 통해 교사로서 더욱 지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이들한테 실제 적용해서 느낀 점도 많았지만 이론이 좀 탄탄해진 것 같아요. 음악 교육이나 미술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적용해보지는 않았지만 그전에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그때는 공부할 필수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내가 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듣고 싶은 부분을 듣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들어오는 지식 양들도 많아지고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머릿속에 유아교육의 지식이나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2011. 5. 14 F교사 면담)

H교사는 원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유아교육의 이론들을 교육대학원에서의 수업을 통해 다시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교사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오랜 경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 기술보다는 이론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었는데,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수업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지만, 이론적으로 H교사가 지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어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면담내용과 저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무식한 원장에서 조금씩 탈피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피라고 하기 보다는 예전에 학부 때 배웠던 것들이 조금씩 생각나면서 일깨워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유아교육 전공서적을 들여다보고 공부할 시간은 많지 않으니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랬었지. 그랬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적인 충족감을 느낀다고 할까? 제가 교육대학원에 오게 된 건 현장에 있다가 전공 이론에 대한 순수학문이랄까? 학부 때 배우는 이런 부분을 심화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되돌리고 싶었던거예요. 너무 많이 응용하는 현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왔을 때 이론이라도 체계적으로 훑고 가면 ‘난 대학원에 온 것에 대해서 만족 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2011. 4. 12 H교사 면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도움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 내가 이것을 수업만 듣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으니깐 듣고 ‘아 이게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나눌 수 있고,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안다기보다는 기존에 알던 것들을 다시금 알람시계처럼 날 깨우쳐주는 부분들이 있다.

(2011. 6. 23 H교사 저널)

위의 면담내용에서 보듯이 H교사는 오랫동안 유치원 현장에서 교육을 실행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오는 지적인 갈망이 교육대학원에서 다시 배우는 이론들을 통해 채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즉, 교육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통해 교육에 대한 이론적 틀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유치원 교사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대학원에 다니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교사는 이론적으로 지적인 지식이 습득되자 학부모와의 면담에서도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연령에 맞는 특징들에 대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말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론적인 지식 배경을 토대로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더욱 전문가적으로 발전된 교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D교사의 저널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문제행동 보일 때 사회교육세미나 수업 듣고 나서 체크리스트 해서 부모상담 했었죠. 부모상담하니까 이론적으로 배우는 교사라는 게 정말 아이들의 발달 단계 라든지 영역별로 이 연령에 맞는 놀이형태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셨죠. 긍정적으로 상담에 임해주셨어요.

(2011. 5. 3 A교사 면담)

대학원을 다니면서 들었던 강의들을 돌아보면, 유아평가, 문학교육, 영유아문제행동, 언어교육 등이 생각난다. 학부 때와 교사연수 때 들었던 강의들 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최근의 경향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부모 상담할 때 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학부모들도 교사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와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에 신뢰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느낀다. 이론적으로 알면 알수록 유아들에게 좋은 교육, 적절한 교수방법 및 평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현장에 적용해 보게 되는 것 같다.

(2011. 6. 8 D교사 저널)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업이 이론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체계적으로 정립된 이론은 교사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어 학부모 상담이나 교수방법, 유아평가 등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놀이지도 수업을 듣고 ‘빨리 유치원에 가서 자유선택활동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연령별 유의점들이 알 수 있었고, 빨리 놀이지도나 평가나 심지어 놀이 정리하는 것을 좀 직접 ‘아이들이랑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2011. 5. 14 F교사 면담)

F교사도 놀이지도 수업을 통해 자신이 현재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책의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다시금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수업을 듣고 나서 자기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었고, 자유선택활동시간이 유치원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했다.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유치원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서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2) 현장의 적용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서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통해 지적인 지식을 배우고,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도 습득하였다.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들은 눈에 띄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기 전보다 유치원 교사로서 더욱 성장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다. A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이루어진 수업을 바탕으로 함께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들과 같이 적용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고 하였다.

저는 수업을 듣고 나서 현장에서 적용해봤어요. 교사 교육 세미나 들었을 때 저희 선생님들하고 목요일마다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 같이하고 그걸로 우리가 교육청에 발표하는 것까지 제출했어요. 그렇게 배운 걸 적용해봤어요. 새롭고 적용을 해보니까 정말 알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깊숙하게 이론적으로 내가 접해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011. 5. 3 A교사 면담)

D교사는 유아 예술교육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유치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미술에 관한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해보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법들에서 좀 더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해보았다고 하였다. 이런 D교사의 노력은 아이들의 웃음과 즐거운 수업으로 이어져 재미있고 행복한 교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술관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참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현장에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고, 유아 예술교육세미나를 통해 유아 극 놀이를 해볼까라는 마음도 생겼어요. 또, 음악교수법을 배웠는데 너무 좋았어요. 노래 지도, 악기지도 틀에 박힌 지도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적용해 가르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적용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적용했는데, 유아들과 새 노래를 부를 때 매우 즐겁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학원에서 배운 교수방법들을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더 재미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아를 관찰하는 눈과 방법들을 배우면서 유아의 개별지도에 대한 방법도 생각하게 되고 유아를 평가하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2011. 5. 2 D교사 면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들은 영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해도 현장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 F교사는 어린 영아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서 알게 되는 영아와 할 수 있는 활동이나 내용들을 자녀에게 적용해봄으로써 영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과제물 발표할 때 실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는 적용해봤고. 특히나 영아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아이한테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몬테소리 콩 집고 이런 것들 물론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을 내 아이한테 직접해보고 보고서로 제출한 적도 있어요. 특히나 어떤 활동을 교재교구 관련된 강의 들었을 때는 아이들한테 적용해보고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내 아이한테 실제로 적용해보고 과제물로 제출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2011. 5. 14 F교사 면담)

B교사는 평소 상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대학 때 상담센터에서 실습을 해보기도 하고, 놀이치료나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적 수업을 많이 들었다. 교육대학원에서도 이러한 수업을 듣고 나서 이론에 접목시켜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떠올려보고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마침 B교사의

반에 자폐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서 배웠던 이론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해보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놀이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사들보다는 조금 미흡하겠지만 B교사는 본인 스스로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도하고, 학부모들과 상담할 때에도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교사로서 전문가다워짐을 느꼈다.

학부 때부터 행동주의나 놀이치료에 대한 것들을 들었으니까 놀이치료도 상담 센터 같은데 가서 실습 때 따라가서 봤었고 장애나 자폐를 가진 아이들도 직접 만나봐서 그런 아이들이 일반 유치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보고 대학원 가서는 이론에 접목시켜보기도 하고, 우리 반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직접 했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한 학기동안 했었으니까 학기말 과제를 하면서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해봤기 때문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놀이치료를 하시는 분과는 차이가 나겠지만 제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죠. 제가 공부한 분야니까 이제 전문가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반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 같은 경우에 그런 상담기법들을 공부하고 나면 그거대로 관찰 기록법으로 기록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어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해주시고, 나중에 센터 같은데 가도 많은 도움이 되시나 봐요. 졸업한 후에도 연락이 가끔 와요. 다른 센터 다니고 있다고 연락도 오고.

(2011. 5. 3 B교사 면담)

A교사의 교실에서도 자폐 성향을 가진 유아가 있었다고 했다.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나서 A교사는 그 아이에 대해 자세하고 면밀히 관찰하여 기록을 작성해나갔으며 모아둔 자료를 바탕으로 자폐를 진단할 수 있는 평가에 대입해 본 뒤 학부모와의 면담을 가졌다고 하였다. 자녀의 자폐를 인정하지 못하던 학부모들은 A교사가 제시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보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다른 센터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A교사는 기존에는 단순히 ‘저 아이가 자폐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

로 접근했다는 것이 교사로서 많이 성장한 것 같다며 흐뭇해했다.

지금 저희 유치원에 새 학기 시작했는데 한 아이가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제가 특수교육을 배웠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자폐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계속 관찰하면서 사진 스크랩하고 그리고 이론이나 미국학회에 나와 있는 자폐 성향 진단서에 맞춰서 아이를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느낌은 이렇지만 평가서에 맞게 PPT를 작성해서 부모 상담을 했어요. 아이의 문제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보여드려서 이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센터에 가보도록 했어요.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중증은 아니지만 자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운 내용으로 단순히 “아이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객관적인 이론에 의해서 접근을 해서 PPT까지 관찰기록해서 센터에 보냈죠. 예전에는 상담으로 이 “아이가 이런 것 같으니까 가보세요.” 했다면 “이 아이는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죠. 더 전문가도 되었고 책을 보면서 이론 찾아보면서 논문 보고 다른 사례를 봤을 때 다르게 접근을 했죠. 제가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아이에 대해서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아이에 대해서도 교사로서 또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가 더 잘 발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에 관심이 갖게 되더라고요.

(2011. 5. 3 A교사 면담)

H교사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치원보다 조금 수준을 낮춘다는 개념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영아 프로그램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해 본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대학원에서 영아 프로그램에 관한 수업을 듣고 나서 H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을 바꿔보기로 했다고 하였다. 다만 짧은 1~2주일의 시간이더라도 대학원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적용해보았다고 하였다. 몇몇의 반을 대상으로 운영해보았기 때문에 그 반의 담임교사들은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어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H교사도 운영자로서 유치원 교사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대학원에서의 배움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대학원에서 영아 프로그램에 관련 되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대학원의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들과 실험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존에는 주제적 중심이잖아요. 표준보육과정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강의시간에 들었던 내용은 활동중심의 목표중심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래서 0세~1세 담임선생님들 대상으로 운영을 해봤었죠. 1~2주일 정도. 그것을 위해서 활동 목표중심의 계획을 짜서 했었죠. 저희는 어린이집도 정교사들이 많고 그들을 위주로 채용을 많이 해서 어떤 그들이 학부과정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과정을 조금만 더 수준을 낮춰서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원은. 그래서 한번 해보자. 서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봤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었어요. 반면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니까 진행하는 동안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의외로 교사손이 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야하고 항상 교육과정에 대해서 오픈 되어 있는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어야겠더라고요. 더 많이 아이들한테 집중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마침 그 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방향도 있더라. 이미 이런 보육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해볼까? 라고 어떤 출발점이 제가 되어 준거죠. 해보고 결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한거죠.

(2011. 6. 7 H교사 면담)

자유선택시간은 유치원의 꽃이라도 불리 울 만큼 아주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시간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은 혼자서 놀고, 유치원 교사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운영하는 곳도 많은 편이다. D교사 역시 자유선택시간이 중요한 시간임을 알지만 유치원 현장에서는 그 시간을 효율적이게 활용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교육대학원에서 수업을 통해 자유선택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배우게 되면서 유치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상호작용을 나누고, 다

양한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유치원 교사로 자신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교사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저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대학원에서 배웠던 내용 중 에 자유선택놀이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현장에서나 학교에서도 유아교육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임을 알고 있기에 늘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상호작용 및 교구,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 구성을 해줘야 함을 알고 있지만, 막상 교사였을 때는 조형 활동만 치중하고 다른 영역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적용하였을 때는 쌓기 영역, 역할 영역의 놀이가 더 풍성해 질 수 있도록 구성해주는 교사의 역할들이 많이 바뀐 것 같다. 또한 유아들의 놀이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알았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적용하게 되는 것 같다.

(2011. 5. 31 D교사의 저널)

(3) 동료교사를 통해 얻는 깨달음

학교에서의 배움은 책과 수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대학원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공감하는 토론수업이 활성화되어있다.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 다니면서 수업시간에 다른 동료 교사들과의 의사소통이나 발표, 토론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딱딱한 책을 통한 지시적인 배움이 아닌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생각을 나눌 수 있었으며, 다른 동료교사와의 소통은 지적인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과 격려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교사들은 공통의 일을 하고, 같은 고민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교사로서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대학원은 토론하는 문화가 잘되어서 몰랐던 부분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나는 책에 이렇게 나오니까 경험주의로 봤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저렇게 했구나.' 라고 생

각이 들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2011. 5. 3 B교사 면담)

대학원에서 만나는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힘과 격려를 받게 되고, 유치원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나 교수방법들을 전해 듣게 되어 좋았어요. 유치원 현장에 있으면 틀에 박힌 교수 방법으로 계속해서 적용하며 진행했을 텐데.

(2011. 5. 2 D교사 면담)

C교사와 A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다른 동료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었는지 깨우쳤다고 하였다. C교사는 일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닌 레지오에밀리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레지오에밀리아 교육프로그램의 교수방법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대학원 동료들을 통해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반성하는 시간을 되었다고 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의 실제 사례를 직접 현장에서 적용해 보며 자신의 교수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교사로서 만족감과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점은 다른 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였던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결혼 전에는 한 유치원에서만 있어서 다른 유치원의 상황이나 프로그램들을 거의 모르고 지냈어요. 특히나 레지오 기관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치원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물 안 개구리였던 거죠. 대학원에 함께 다니는 교사들의 유치원, 원장 얘기를 들으며 내가 있던 곳과의 차이도 한 번 생각해 보고, 레지오 기관과의 다른 점도 생각해 보고, 말도 안 되는 원장과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 등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교사였을 때도 떠오르고 반성하게 되고, 병설은 레지오가 아니니까 내가 현장에 있을 때 했던 것을 부분수업으로 해 보기도 하고, 대학원에서 동료 교사들이 했던 활동들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 활동들을 내가 맞다고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시행해 보기도 하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꽤 흥미롭네요.

(2011. 5. 22 C교사 면담)

제가 나이가 돼서 그런지 여기 있으면서도 계속 선생님들하고 뭐할지 연구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들 아이들에게 맞는 게 무엇일지 연구하고, 현장에 있으면 계속 연구하게 되잖아요. 수업시간에 다른 선생님들이 발표하시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적용시켜봐야지.’ 하고 느꼈을 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저렇게 했구나. 전 잊어진 이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알아가는 과정은 좋았어요.

(2011. 5. 3 A교사 면담)

주변선생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동료교사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피드백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수님께도 물어보면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011. 5. 3 B교사 면담)

B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제한 동료 교사들에게 유치원에서 겪는 어려움, 아이들과의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교수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도 했지만 교육대학원에는 경력이 다양한 많은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B교사는 다른 교사들의 경험을 전해 듣고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의 교수방법과 지도방법을 수정, 보완해 나갔다고 하였다.

(4) 커진 생각주머니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서 지적인 지식 습득을 통해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B교사는 교육대학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 중 매체를 통해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선진국들의 유아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도 어떻게 점점 변화하고 있는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크게는 시각이 다양해진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수님이 일본의 교육프

로그램이 좋다고 찍어서 보여주시고 그런걸 보면 미처 놓쳤던 부분이고, 방송에서 했던 건데도 교수님이 알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토의하고, 그리고 요즘세대 계속 여기에 만 있다면 유아교육이 멈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차 교육과정을 나라에서 정해준 거 외에는.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유아교육의 관점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주 시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의 발전에 맞춰서 이렇게 발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알려주시고. '난 대학원생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11. 5. 3 B교사 면담)

현대사회가 되면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이런 사회 변화에 발맞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더욱 다문화 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F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교직과목으로 다문화 수업을 듣게 되었다. 수업을 듣고 난 후에 그동안 F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인종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문화나 인종이나 성별, 민족 등에 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깊이 있게 다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다문화 아이들이 현재 우리 반에는 없지만 분명히 비전이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다문화에서 백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나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시선이 예전에는 단순히 흑인,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르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고정관념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1. 5. 14 F교사 면담)

C교사는 교육대학원에 오기 전에는 유아교육에 관련된 지식이나 이론을 알기 위해 인터넷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 교육대학원에 진학 후에 논문을 접하게 되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 책이나 인터넷 외에도 논문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다. C교사가 찾고자 하는 주제의 관련 논문을 찾아보

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유아교육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더 전문가다워짐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예전에는 이론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있거나 문제 행동을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막연히 전공서적을 보거나 인터넷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지금은 논문을 주로 읽는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고민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것을 접하게 되어 좋더라고요.

(2011. 5. 22 C교사 면담)

유치원 교사들은 넓어진 시각 뿐 아니라 성숙한 교사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내 앞에 놓여진 나무만을 보던 교사들은 멀리 숲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사고를 가지고 유아교육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아교육에 대한 시각이 넓어진 것 같아요. 현장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더 나아가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새로운 교수방법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넘어 유아교육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되는 것 같아요.

(2011. 5. 2 D교사 면담)

아이들한테 조금 더 성숙한 교사의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에는 강화와 보상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깊이 있게 했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구성주의 관점이나 유아중심의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부분이 조금씩 세심하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2011. 5. 14 F교사 면담)

대학원에서 배운 실질적인 도움이란 것은 결국 교사의 생각과 마인드의 변화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더 교육현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고민은 결국 유아교육 현장의 질적 개선과 또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 변화로 연계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유아중심에서 바라보는 교육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 태도의 많은 변화가 왔어요. 이전보다 시간의 효율적 사용이나, 유치원 현장에서의 자료 준비 및 수업준비의 폭도 많이 넓어지고, 더 발전적으로 달라진 것 같네요.

(2011. 5. 12 E교사 면담)

논문을 보는 습관을 갖게 된 것도 좋은 것 같고 선생님들이 연구수업을 한다고 할 때

도 “이렇게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줄 수도 있고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현장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2011. 5. 17 H교사 면담)

경력도 쌓이면서 보는 눈이 예전엔 조금만 보였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다 눈에 보이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교사가 많이 예전에는 주도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 교육대학원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귀를 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좋았다.

(2011. 5. 16 B교사 저널)

위의 면담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은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유아 개개인들에게 적절한 교육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해줄지 등과 같은 실제적인 부분들 뿐 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유치원 현장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나도 연구자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서 새로운 경험과 학문을 닦으며 이제 단순히 교사로서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모습으로서 어떤 연구를 하면 유치원 현장에서 도움이 될지를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반복되는 일상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교수방법 등을 창조하고 연구하려는 자세로 변해갔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반복적인 일과 늘 같은 교수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하며 느꼈던 회의감에서 벗어나 새롭게 배우고 도전하면서 그곳에서 삶의 활력을 느끼고 싶어서였는데, 교사들은 항상 고여 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물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

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자세로 배우고 그것을 통해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무의미하고 똑같은 생활이 반복 되면서 유치원 교사로서 회의감을 들었는데 교육대학원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고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된 것 같아요. 또, 유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좋으며 어떤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될까 라는 고민을 하며 방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2011. 5. 2 D교사 면담)

정말 연구하는 교사가 되어야한다는 생각. ‘멈춰있지 말아야 된다.’ 는 생각. 고이면 썩듯이 흐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학문에 적용해서 ‘질 좋은 교사가 되어서 질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1. 5. 3 A교사 면담)

H교사는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좀 더 많은 힌트를 얻었다. 예전에는 교사들과의 회의시간에 해보자는 의견만 내세우고, 실천에 옮긴 경우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실천해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연구자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H교사는 연구를 통해서 원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연구자적인 자세를 갖는 관리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학원 공부를 통해서 유아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조금 더 전문가답게 관심을 가져보아겠다는 생각을 하죠. 아이들 교육하면서 교사들과의 관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나 궁금하다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겠다! 연구자적인 자세를 가졌다고 할까? ‘재미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세미나나 회의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끝냈다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라고 바뀌지 않을까 어떤 곳에 기고를 한다거나 올려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연구를 해보고 그것을 통한 개선된 방향을 갖게 된 것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일상에서 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대학원을 통해서 더 갖게 된 생각이죠. 전에는 그냥 뭔가 좀 더 전반적인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리더로

써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다면 조금 더 소소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 더 연구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재미있는 연구를 보면 선생님들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011. 6. 7 H교사 면담)

3) 보람 느끼기 : 마음에서 오는 풍요로움

본 연구를 실행하면서 유치원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주부로서 가사와 양육, 일과 학업을 병행했던 교사, 유치원에서 원장과 동료교사의 눈치를 보며 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다녀야 했던 교사, 과제와 논문이 생소하고 낯설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했던 교사들까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들이 교육대학원에서 보내온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도전한 자신이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한다. 이런 교육대학원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에 또 다른 더 큰 꿈과 도전을 꿈꿀 수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1) 나에게 칭찬하기

B교사는 5학기를 모두 마친 지금 교육대학원에서의 생활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교육대학원에서의 공부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 유치원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대학원에서의 생활은 자기발전이 시간이었다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고, 더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2011. 5. 3 B교사 면담)

H교사는 아주 오랜만에 원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 배우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돌아보며 받는 스트레스를 학교를 오는 순간 다시 학생의 자세로 돌아와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한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바쁜 시간 와중에도 시간을 알차고 보람되게 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며 웃음을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이번 학기에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꺼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학교를 오게 되는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도 학교 오는 길은 즐거워요. 학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 순간 '난 학생이야.'라는 생각에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그 전의 일을 다 잊고 공부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기뻐요. 이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내가 이렇게 왔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2011. 4. 12 H교사 면담)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보이며, 교사로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욱 교육대학원에서의 생활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유아교육의 학문을 사랑하고 자신을 직업을 사랑하는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생활 속에서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과 자신의 교직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이었는지 깨달으며, 자기 자신에게 주는 존중감도 함께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제 직업을 너무 사랑하고 이 직업이 저한테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교육의 학문이 너무 좋아요. 재미있는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식을 알아가는게 너무 재미있는데 그게 이 교육대학원에서 잠깐 잊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교사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또 엄마로서 유아를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달라지는 상황에서 교육대학원에 공부하고 그리고 또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2년 반 동안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2년 반 동안 배운 것이 헛된 것을 배운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내 스스로가 주는 인지도가 높아지고.

(2011. 5. 14 F교사 면담)

양육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양육하면서 공부하고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고 또 일하고 있으니까 많은 것들이 힘들었지만 이제 졸업하는 5학기 되니까 정말 잘 참았다. 내가 정말 힘들어도 공부나 과제 발표하는 것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잘 참아서 내가 스스로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 스스로 만족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2011. 6. 23 F교사의 저널)

공부하면서 만족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나의 교직생활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교육대학원생활을 통해서 저의 자아 존중감이 많이 높아 졌어요. 또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2011. 5. 12 E교사 면담)

G교사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마음만은 행복하다며 기쁨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리 일과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자신이 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뿌듯함으로 마음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교육대학원의 생활이 힘들어서 지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 G교사에게는 오히려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 이였고, 교육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하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론들이 실재와 접목되면서 많은 것들을 반성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

요. 현장에서 많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재충전이 되었습니다. 2년 반의 대학원 생활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겠지요.

(2011. 5. 29 G교사 면담)

5년의 교사경력이 쌓이고 늘 똑같은 패턴의 무료함과 교사로서의 회의감도 있어 새로운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어서 교육대학원을 지원하고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기를 시작하였고, 유치원 일과 후 대학원에 와서 강의를 듣고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도 들으니 도움도 되고 휴식이 되는 시간이 되어 참 좋았다. 그 뿐 아니라, 유치원 평가와 주임이라는 일의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학기,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같이 일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배려로 인해 잘 마무리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함도 있다.

(2011. 6. 11 D교사의 저널)

(2) 우물 안 개구리, 세상 밖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으면서 또 다른 도전을 꿈꿨다. 그 도전이 비록 각자 자신들이 꿈꿨던 여러 가지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유치원 교사들 모두 새로운 도전을 향한 자신감과 열정은 한마음이었다. 교육대학원에서의 생활과 배움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결코 지적인 지식과 교수방법의 기술 등을 얻게 한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 곳이라 할 수 있겠다.

안주하지 않게 해주는 것 같네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보다는 그로 인해 새로운 것에 또 도전하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2011. 5. 29 G교사 면담)

저는 이 공부가 끝이 아니고 이 공부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싶는데 그걸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유아교육의 박사를 한다거나 석사를 다

시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 공부를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힘겹게 했으니까 다른 것도 굉장히 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신감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고 누군가에게 내가 석사를 가졌다는 떳떳함이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 5. 14 F교사 면담)

D교사는 유치원 교사의 경력이 더 많아지면 유치원이 아닌 기관에 근무하면서 유치원이나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다. 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것들을 감안하여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보였다.

저는 대학원을 마치면 유치원 현장일 말고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유치원 현장을 서포트 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보는 일 같은 것을 해 보고 싶네요.

(2011. 5. 2 D교사 면담)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아주 소박하게 느낀 생각은 거대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졸업한 전문대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교수님에게 느꼈던 모습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단에 서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멘토가 되어서 유아교육 실습 나온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너무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내가 느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2011. 5. 14 F교사 면담)

F교사는 공립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교육대학원에서 교수에게 배웠던 교사의 참모습을 또 다른 후배나 멘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되고자 했다. 큰 대학의 강단에 서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든 유아교육을 배웠고, 교사로서 진정한 참 교사의 모습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어떤 동기로 진학하게 되었으며,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대학원 진학 동기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교사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교사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였으며 교사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현장에서 유아, 학부모, 원장, 동료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치원 현장에서 이론과 실재를 접목시키는데서 오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 등으로 유아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웠다고 이야기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와의 관계, 수업의 진행, 교수방법, 이론의 현장의 적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강상이, 2002; 김숙희, 2003; 김선미, 2004; 김현정, 2000; 서정림, 2006; 조소영, 2004; 황은희, 2007)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학부모를

어렵고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상담 기법 및 대화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강상이, 2002; 고주영, 2003; 김숙희, 2002; 김현정, 2000; 서정림, 2006; 전복희, 2006; 조소영, 2004; 황은희, 2007)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 교사는 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원장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무책임한 교사로 낙인 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치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교육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은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신들을 점점 지쳐가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현장에서의 소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활력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학급 관리 운영, 교수학습 자료 준비, 행·재정 업무 뿐 아니라 다양한 많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치원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는 소진과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교사들의 어려움을 야기 시킨다는 선행 연구(권나연, 2011; 김정아, 2011; 문송이, 2008; 배영선, 2007; 서정림, 2006; 장주혜, 2008; 조소영, 200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반복되는 생활로 인해 나태해진 일상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고 이러한 불안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지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치원에서 교사들은 점차 경력이 쌓이면서 반복적인 일상과 똑같은 업무에 대한 지루함으로 점점 만연해지고 나태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치원 현장은 유아들이 등원하는 시간부터 하원 하는 시간까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하루가 지나간다. 초임교사시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기 때문에 동료교사에게 배우고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생활한다. 점차 경력이 쌓이

면서 유치원 교사들은 늘 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만연해지고 정착해버린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은 스스로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새로운 이론과 방법, 기술 등을 습득하기를 원했다. 즉, 교사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보다는 아이디어, 자료, 기술, 지도방법 같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추구(Katz, 1982)하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교육대학원의 교육목적은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원양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김주현, 2010 재인용).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교직의 전문성 재고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방법, 기술 등을 습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이상현, 2010 재인용). 이러한 교육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많은 선행연구(김성길, 2001; 김주현, 2010; 김준이, 2005; 김지희, 2004; 김향진, 2008; 이상현, 2010; 최은성, 2003)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교육대학원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습득하고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대학원 진학동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렇게 유치원 교사들은 소진, 스트레스, 만연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서 변화를 주고 새롭게 도전을 꿈꾼다는 것이 두렵고 선뜻 시작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고 하였다. 머뭇거리고 있었던 유치원 교사들을 동료교사나 원장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런 주변 동료들의 응원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 출발선에 설 수 있었다고 한다.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교사로서 질 좋은 교육과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교육을 목적으로 스스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문대학을 졸업한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의 학력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라고 하더라도 최종 학력이 다르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늘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교사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를 대하는 사회의 선입견과 곱지 않은 시선이 교사들을 최종학력에 대한 미련과 갈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전문대학을 졸업 후에 유치원에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면서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교 등과 같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학력을 바꾸고자 노력해왔다고 한다. 학사학위를 취득 후에도 개운치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유치원 교사들을 교육대학원에까지 진학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학벌에 따라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치원 교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이보미(2007)에 의하면 한국 사회과학데이터(KSDC)에 전국 20세 이상의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학벌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였는데 75%가 학벌에 따라서 차별의 심각성을 느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결과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학벌에 대한 강박관념과 사회적인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넷째, 유치원 교사들은 지적 욕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갈망을 채우고 교육에 대한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들은 현장에서 유아들과의 교육활동을 통해 이론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나 보완하고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을 지적인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채워나가길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지적 욕구의 갈망은 유치원 교사들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책속의 이론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활동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지적인 지식 습득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지만 스스로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하였다. 물론 학부 때 유아교육 관련 서적들을 보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습득했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시시때때로 이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지적욕구에 대한 갈망은 유치원 현장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을 다시금 배움의 장으로 불러오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도자적인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교원에 대한 계속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김향진, 2008)는 교육대학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2) 교육대학원을 통해 겪는 유치원 교사들의 경험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진학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유치원 교사들은 모두 유치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기혼인 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과 학업, 가사와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일과 학업, 또는 가사와 육아까지 병행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유치원 교

사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유치원 업무를 부리나케 끝내고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에는 거리상의 문제로 퇴근시간 전에 조금 일찍 퇴근해야했기 때문에 동료교사에게 미안한 마음과 원장의 눈치를 살피며 다녀야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과제나 논문에 대한 것들이 생소해 과제와 논문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상황에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즉, 온라인 오프라인을 모두 이용하고 평일과 주말을 이용한 강좌의 개설 등 수업방법과 시간의 다양화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생활을 통해 점차 자신이 좀 더 전문가다운 교사로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유아들과 함께 지내는 유치원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유아교육에 관한 이론을 잊고 있었지만 교육대학원에서 수업을 통해 이론을 탄탄하게 재정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대학 학부 때 배웠던 수업내용들은 다시금 떠올리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교육관과 가치관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선택한 과목들에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대처 방법을 교육대학원에서의 다양한 수업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탄탄해진 이론을 바탕으로 교사들은 유치원 교실에서 적용해보았고 그 효과와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초임교사가 학부 때 배웠던 이론을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에게 적용해 볼 때 실제에서 오는 괴리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주영, 2003). 그러나 교육대학원의 교사들은 자신이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실제들을 바탕으로 학부 때 배웠던 이론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습득한 지식을 직접적이

고 즉시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유치원 현장 특성상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들과 함께 지내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적용해보면서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며, 배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교육대학원 교육의 초점은 학술이론보다는 전문 분야의 실제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의 효과는 학문적 창조성보다는 사회적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김성길, 2001)는 교육대학원의 이념과 부합되는 결과로 여겨진다.

유치원 교사들의 이런 배움은 교육대학원에서의 수업을 통한 것 뿐 아니라 교육대학원에서 만나는 동료 교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최혜숙(2007)은 교사간의 멘토링은 교사들에게 재교육의 기회와 직업의식도 일깨워주며, '배움을 위한 관계'로 적절하고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유아교육에서의 멘토링은 유아교사들의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발전시키며,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인식을 갖추게 한다. 이러한 멘토링은 전문가로서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토대가 되어 주며(이가은, 2005) 교사간의 멘토링은 지식적 사고 뿐 만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김선희, 2010; 김희숙, 2009; 이은정, 2010; 이정화, 2009; 장선희, 2008; 홍은경, 2003). 교육대학원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서로에게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즉, 다른 동료 교사들의 발표수업이나 토론시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치원 교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우치고 느낄 수 있었으며 다른 유치원에서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정보교환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발표, 토론 등과 같은 교육대학원에서의 수업 방식은 상호 모델링이 되어 동료교사의 특정한 행동양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 등을 전수받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으며(문미성, 2010) 형식적·비형식적인 방식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료교

사들과의 만남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김경은, 2011; 이영미, 2002)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대학원의 생활을 통해서 점차 유아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깊게 사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실에서 많은 유아들을 관리·지도하는데 더 여유가 생기고, 한 눈에 유아들이 들어와 관찰하는데도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하였다. 이렇게 유치원 현장에서 유치원 교사로서의 모습과 태도가 변화되는 걸 느낀 교사들은 점차 교사에서 유아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모습으로도 변화하고 있었다. 단순히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에서 더 나아가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연구자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논문형식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론적인 내용을 찾고, 그것을 유아들에게 적용시키고, 변화된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유아교육에 대해 더 전문가다워지는 자신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들은 예전의 안일했던 모습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렇듯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생각과 태도, 교육관, 교사로서의 역할이 변화되면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대학원에서의 경험은 교사로서의 역할과 태도 뿐만 아니라 인생관까지 변화시키고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낸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Rogenberg(1965)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라고 하였다(강운선, 2005 재인용). 교육대학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진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을 잘 수행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유치원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

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가 많은 것들을 접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무슨 일이더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으며,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참여자인 8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또 다른 도전에 대한 꿈은 조금씩 달랐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다른 도전을 향한 열정은 모두 똑같았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와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겪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 볼 수 있다.

연구 문제 첫 번째인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고 교사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변화의 방법으로 교육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은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진되었을 뿐 만 아니라 반복되는 생활로 나태해진 일상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불안함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활력소를 찾기 위한 유치원 교사들의 노력은 교육대학원 진학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셋째, 유치원 교사들은 전문대를 졸업한 자신의 학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동등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전문대 졸업이라는 자신의 학력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은 교사들에게 많은 부담감이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넷째, 유치원 교사들은 지적 욕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좀 더 전문적인 교사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 두 번째인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느끼는 경험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느끼는 어려움은 일과 학업, 가사와 양육을 함께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교육대학원 수업을 위해 유치원에서 조금 이른 퇴근을 하는 것에 대한 동료교사와 원장의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어려움, 학부 때와는 다른 과제와 논문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하는 교육대학원 수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로는 유아교육의 이론이 더욱 탄탄해져 지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적용을 통해 기술적인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교사의 모델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으며, 점점 넓고 깊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면서 연구자적인 자세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에서는 토론과 발표 등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다양한 수업방법과 동료 교사들 간의 만남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전문가로서 성장한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대학원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또 다른 일의 도전을 꿈꾸는 열정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대학원 동기와 교육대학원에서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대상으로 교육수요자인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조사하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 경험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알 수는 있었지만 교육대학원이 가진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는 없다. 따라서 교육수요자들이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교육대학원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교육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의 토대가 될 연구들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유치원 교사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원에는 유치원 교사 외에 보육교사, 학원 강사, 사교육센터의 교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이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명희(2002).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장학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상이(2002). 교사 발달 측면에서 본 유치원 초임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윤선(2005). 성인의 자존감과 집단 상담의 효과요인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선아(2008). 사립유치원 초임교사와 교직적응에 관한 연구 : 원장의 시각으로 본 초임 유아교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주영(2003). 한 사립유치원 초임교사의 교직생활과 어려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정(2006). 공·사립 유치원 초임교사가 지각한 교사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영우·권상혁·서정화·신통철·최성락·하상일·황희일(1997).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
- 권기욱(2005). **유아교사론**. 서울 : 문음사
- 권나연(2011). 유치원교사의 직무환경의 위험요소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역할.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량·조채영·좌승화·최진원(2009). **유아교육개론**. 서울 : 공동체
- 김금주·김연진·윤희경·윤덕영·곽은복·오진희·김소향·최은숙·김은정(2009). **유아교육개론**. 서울 : 창지사
- 기경화(2008). 유아영어교사의 자질 및 교사효능감에 대한 자기평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2007). 중등미술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교육 연구 : 교육대학

원 미술교육전공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미(2004).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인식한 현장문제와 장학요구에 관한 연구.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희(2010). 멘토링 활동이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길(2001). 교육대학원 전문화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원 · 석은조 · 신성숙 · 신은정 · 이춘옥(2010). **유아교육개론**. 서울 : 공동체

김수진(2004).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교육과정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남(2000). 유치원 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따른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희(2003). 사립 유치원 초임 교사의 현장문제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덕(2000). 유아교사의 효능감과 역할수행 인식능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애련(1985). 유아교육원장을 통해서 본 유아교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경 · 이선옥 · 고태순 · 이현아(2007). **유아교육개론**. 서울 : 태영출판사

김유리(2004). 유치원교사의 발달단계와 교사 효능감과의 관계 : 제주도 사립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림(2000). 교육실습의 특성이 초임교사의 역할수행 지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6). 유치원 교사의 직무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자(2002). 유치원 교사의 역할지각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2011). 유치원 교사의 직무환경의 위험요소와 심리적 소진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순(2009). 유아교사의 관심사 발달단계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현
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2011). 공립유치원 교사의 행정적 업무수행의 어려움 및 개선에 대한
인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2000).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서의 발달단계와 관심사 수행에
따른 직무만족.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2010).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교과과정 및 교육수요자 연구. 이
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이(2005).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9). 교사·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아교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 아
주대학교 교육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춘경·김판희·박성은·신인숙·유승구·유혜령·이기현·이미란·
이순중·이화도·조성자(2004). **유아교육개론**. 경기 : 양서원
- 김태희(2004). 2003~2004년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교과과정 비
교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진(2008).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 분
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2009). 발달단계에 따른 유아교사관심사와 교사효능감과의 관계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2000). 공립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현장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정(2002). 교사발달단계에 따른 유아특수교사의 관심사에 관한 분석.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영(2009). 유치원 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멘토링 실태와 요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2009). 유아교육기관에서 멘토링 기능이 교사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 · 윤은종 · 안연경(2006). **유아교육개론**. 경기 : 양서원
- 문미성(2010). 보육시설에서 경험한 멘토링 기능과 초임교사의 교직적응과의 관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송이(2008). 유치원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아행동지도와 교사의 어려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욱(1993). 교육대학원 교육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미(2001). 유치원 교사의 생애에 관한 연구 : 한 교사의 생애를 통해 본 유치원 교사의 발달과정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연(2000). 유아교사 자질과 양성체제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 분석.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2009). 유치원 교사의 교직윤리의식과 역할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2003). **유아교사론**. 서울 : 창지사
- 박은혜(2009). **유아교사론**. 서울 : 창지사
- 박형주(2007). 충청지역 교육대학원의 음악교과과정에 관한 분석 연구.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원(2011). 교육대학원 미용교육전공 교과과정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선(2007). 유치원 일반학급교사와 통합학급교사의 소진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민경(2007).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교과과정 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림(2006). 유아교사의 초임 교직적응경험의 의미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옥순(1998). **유아교육학개론**. 서울 : 학지사
- 심귀섭(1993). 교육대학원 교육환경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지숙 · 이명순 · 조형숙 · 김현주 공저 (2008). **유아교사론**. 서울 : 정민사
- 유순이(2003). 유아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직능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인(1990). 유치원 교사자질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와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애(2002). 유아교사 관심사 발달단계에 따른 임상장학 모형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가은(2005). 경력-초임 유아교사간의 협력적 멘토링 과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 이순옥 · 이옥임 · 이태영 · 임미혜 · 정정옥(2009). **유아교육개론**. 서울 : 교육아카데미
- 이경화 · 김동춘 · 김정원 · 조화연 · 전선옥 · 이연규 · 이문정(2011). **유아교육개론**. 경기 : 양서원
- 이기숙 · 장영희 · 정미라 · 엄정애(2002). **유아교육개론**. 경기 : 양서원

- 이기숙·장영희·정미라·엄정애(2009). **유아교육개론**. 경기 : 양서원
- 이명순(2000). 유치원 교사가 되어 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보미(2007). 학벌주위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도 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옥(2003). 유아교육기관에 따른 교사의 역할인식과 역할수행간의 차이.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현(2010). 교사들의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녕(2002). 유치원 교사의 교사관심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이항재(1998). **최신 유아교육학 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영희(2009). 유아교사의 생애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경·김선영·김성희·김지은·나종혜·문혁준·신인숙·안선희·천희영·최은미·황혜신·황혜정 공저(2004). **유아교육개론**. 서울 : 창지사
- 이은영(2001). Katz의 교사 발달단계에 따른 유아교사의 전문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2010). 어린이집 교사의 발달단계·효능감·멘토링 경험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1985). **유아교육 교사의 역할과 자세**. 유아교사연구교재. 새세대육영회 부설유치원교원연수원
- 이정림(2009). 학부모와 대학생의 유치원 교사 이미지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2007). 유치원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어려움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화(2009). 멘토링 경험과 멘토와 멘티의 교사효능감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하나(2008). 교육대학원 제도 개선방안 모색 : 명지대 교육대학원 일반 사회 교육 전공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진(2001). 유아교육기관 신입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경·김성수(2000). 유아교사의 역할 Q-set개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4(1), 27-54.

이희경(2006). **유아교육개론**. 서울 : 태영출판사

이희주(2010).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교과과정 분석 : 거점대학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아란(2003). 유치원 교사의 교육신념이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선희(2008). 유치원 초임교사의 교직적응을 위한 멘토링 사례 탐색.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주혜(2008). 공립유치원 교사의 직무수행 어려움과 소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혜진(2011). 유치원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관심사의 발달단계별 차이와 특성.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복희(2006). 공립유치원 경력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소영(2004). 유아교육기관 신입교사의 학기 초 어려움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미(2010). 한국 유아교육 공교육화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2011). 사립유치원 초임교사 직무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주연(2005).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현장 문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2003). 사립유치원 교사의 역할지각과 역할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윤(2007). 유아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유아교사상에 대한 질적 연구 : 원장·시설장·유아교사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성(2003).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교과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의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숙(2007). 경력-초임 교사간의 멘토링을 통한 유치원 교사 되어가기.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혜(2004). 유치원 교사의 성격 특성과 교사의 역할 수행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경(2003). 유치원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Mentoring)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윤호(2002). 교육대학원 건설교육전공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희(2007).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urden, P. R.(1990). Teacher development. In R. Houston(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 Davis, M. D. and E. Zart.(1984). Needed in Teacher Education : Developmental Model for Evaluation of Teachers, Preservice to In servic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5), 18-21.
- Ellis, J. R., & Others.(1982). *Differences in professional role performance difficulties reported by first year male and female public school teacher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29 347.
- Feiman, S, & Floden, R. E.(1980). *What's All This Talk About Teacher Development?* (Institute for Research on Teach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ERIC Document No. ED 189 088, p 5.
- Fuller, F. F.(1969). Concems of teachers : A developmental conceptualizatio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6(2), p 207-226.
- Fuller, F. F., & Bown, O. H.(1975). Becoming a teacher. In Kevin. Ryan(Ed). *Teacher Education*(Seventy-four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art I).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egorc, A. F.(1973). Developing Plans for Professional Growth. NASSP Bulletin, 57(377).
- Jensen, M. A., & Chevalier, Z. W.(1990). *Issues and advocacy in early education*. Massachusetts : Simon & schuster, Inc.
- Katz, L. G.(1970). Teaching in Preschools : Roles and Goles. *Young Children*, 17, 42-48.
- Katz, L. G.(1972). Developmental Stage of Preschool Teacher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3(1). p 50-54.

- Katz, L. G.(1977), Teachers developmental stage, In L. G. Katz, *Talks with teachers: Reflection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p.7~13.
- Katz, L. G.(1985). Research Currents : Teachers Learners. *Language Arts*, 62(7), p 778-782.
- Katz, L. G., & Goffin, S. G.(1990). Issues In the preparation of teacher of young children. In B. Spodek., & O. N. Saracho (Eds.), *Early childhood teacher preparation*. NY : Teachers College Press.
- Morrison, G. S.(1976).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 Columbus :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 Newman, K. K.(1978). *Middle-aged experienced teacher's perceptions of their career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Peterson, A. R.(1978). *Career Pattern of secondary school patterns: An exploratory interview study of retired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Read, K., & Patterson, J.(1980). *The nursery school and kindergarten*.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 Saracho, O. N.(1988). A study of the roles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38, 43-56.
- Schickedanz, J. A., York, M. Z., Stewart, I. S., & White, D. A.(1990). *Strategies for teaching young children* (3rd ed.). NJ : Prentice-Hall.

- Seefeldt, C.(1980). *A curriculum for preschools*(2nd ed.). Columbus : Merrill.
- Silin, J. G.(1985). Authority as knowledge: A problem of professionalization. *Young Children*, 40(3), 41-46.
- Smith, A. B.(1991). *Early childhood teacher : Roles and relationship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5 138)
- Spodek, B.(1985). *Teaching in the early years* (3rd ed.). NJ: Prentice-Hall.
- Spodek, B., Saracho, O. N. & Davis, M.(1987). *Founda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 Hall.
- Veale, A.(1988). *Thinking ahead : Early childhood teachers' role into the 1990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52 123)
- Vander Ven, K.(1998). Pathways for professional effectivenes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B. Spodek, O. N. Saracho, & D. L. Peters(Eds.), *Professionalism and the early childhood practitioner*.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ABSTRACT

Kindergarten teacher's discourse analysis of experience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ung Eun-ok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study, I tried to figure out the reason kindergarten teachers ente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know what they experienced by it.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I would like to provide more useful advices that make the better environ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Research questions set up for this are as follows :

1. What is the motivations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 What Kindergarten teachers experience and feel from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consist of 8 people who are studying majoring childhood education in the S graduation school as same as researcher's. 4 participants are incumbent kindergarten teachers with the license and the others are students of the graduate school majoring the childhood education to be teachers.

This study took 3 month from April 12, 2011 to June 12, 2011 and we did an in-depth interview in person. Researcher and the participant talked about their experience of life in the graduate school one by one and did three times for each person. It took around 40-60 minutes for each interview.

Kindergarten teachers' recordings, interviews, field notes, write journals are repeated several times to be divided into the important subjects. There i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ain reason that the kindergarten teachers enter the graduate school is followed :

First of all, kindergarten teachers usually suffer from the real field and they need something new to improve their teaching skills. That is one of the reasons they enroll the school.

Second, kindergarten teachers are getting tired because of the a lot of work to do. Also they think nothing is changed in their life. The graduate school could be a fresh air and make them to get more energy by taking the interesting lessons that they want.

Third, some of kindergarten teachers graduated in college sometimes suffer from the prejudice and it is one of the way to improve their academic ability.

Last but not least, kindergarten teachers are eager for higher knowledge of education skill for kindergarten. And they want to be professional teachers more then now.

The experiences the kindergarten teachers feel is as followed :

First, it is so hard to kindergarten teachers who got married to do work and take care of their babies at the same time. Also they feel sorry to leave their office earlier than other teachers to take the graduate school lessons. Furthermore, a lot of homeworks make them more difficult.

Second, their background of the teaching skill is more improved by taking lessons that they are interested in and it is very useful for them to teach children more easily and efficiently. In addition, they learn the methods that other teachers use by watching them. These experiences make the teachers study more to develop and improve their own skills.

The last, by finding and using the skills that they invent, they are proud of themselves and gain confidence. It will be worked positively in

the real field to children. It means the teachers do self-improvement continually.